



KTTU 클로즈업-2014년 단체교섭!
생존 비상 걸린 현장의 사기 진작 위해
“비상구를 찾아라!”

KTTU 리서치 01
kt, 인천아시아경기대회 경기 방송 전송 인프라 구축
현장 24시
제주지부 Biz지원팀 이길용 조합원
KTTU 칼럼 02
‘갈등의 시대’에 절실한 관용과 배려



모든 결실이 다 땀방울이기에

이맘때 들녘은 그야말로 황금빛입니다.
노랗게 물든 황금들녘을 바라보노라면 풍요로움과 함께
스산함을 느낀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농부들입니다.

자식처럼 돌본 벼들이 모두다 잘려나간 빈 눈은
어딘지 쓸쓸한 분위기를 자아냅니다.

벼는 농부의 발자국 소리를 듣고 자란다는 말이 있습니다.
한해 농사를 위해서는 하루도 거르지 않고 눈에 나가 봐야 합니다.
즐기에 마디는 생겼는지, 이삭은 뻗었는지, 꽃은 피었는지
물은 적당한지, 병해충이 생기지는 않았는지, 피가 번지지는 않았는지
살필 것이 이만 저만 아닙니다.

땅은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는 믿음 때문입니다.
정직하고 꾸준하게 작물을 돌볼 뿐입니다.
자식 키우는 마음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가뭄이나 태풍 같은 시련도 만나지만 묵묵히 제 갈 길을 갑니다.
비록 풍작이 아니더라도 농부는 땅을 원망하는 법이 없습니다.
알곡이든 쪽정이든 모든 낱알에는 농부의 땀방울이 서려 있습니다.
수확의 성과보다 그간의 노고가 더욱 값진 계절입니다.

Content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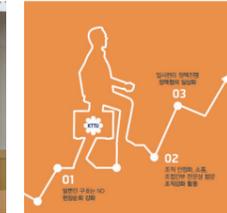
발행인 | KT노동조합 위원장 정유모 **편집인** | KT노동조합 정책실장 차원규
발행처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206번지 KT노동조합 031-727-2835
발행일 | 2014년 10월 17일(격월간) **제작 및 디자인** | 씨그룹희망나눔재단 02-3414-2053 **인쇄** | (주)삼립인쇄 02-469-7111



04
KTTU NEWS



08
KTTU 클로즈업 01
2014년 단체교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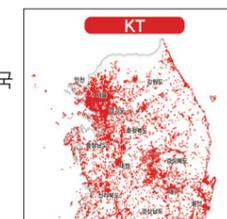
12
KTTU 클로즈업 02
11대 집행부의 3년



09 2014 10 vol.16



16
KTTU 리서치 02
IT산업 노동자의 구심점, 전국 IT사무서비스노동조합연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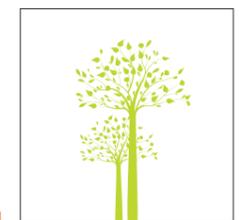
24
KTTU 칼럼 01
광대역 LTE-A 커버리지 맵



18
현장 24시
제주지부 Biz지원팀 이길용 조합원



22
이슈 & 사회
의료영리화 논란 재점화



26
KTTU 칼럼 02
'갈등의 시대'에 절실한 관용과 배려



표지
11대 집행부 3년동안 발간된 책자형 노보 <길> 조합원과 함께 호흡하는 커뮤니케이션 창구로서 역할을 담당했다.



28
길따라 멋따라
- 나 홀로 여행자를 위한 해외여행 안전 수칙
- 주말 밤도깨비 여행

32
건강 & 과학
당신의 건강을 해치는 나쁜 습관들

KTTU news



정윤모 위원장 전국 현장간담회 강행 현장 안정화 시급... 연말 대란 및 분사 없다



KT노동조합 정윤모 위원장은 10월 15일(수) 강남지방본부와 서부지방본부를 시작으로 12개 지방본부 현장순회를 강행한다. 지난 3년간 전국 거의 모든 지부를 찾은 정윤모 위원장은 또다시 불거진 연말대란 및 분사설을 진화하기 위해 직접 나섰다.

이번 현장간담회는 지방본부 조합간부와 지부장을 대상으로 하며, 올해 단체교섭에서 회사로부터 “연말 대란은 없다”는 확답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선거를 앞두고 계속되는 추측과 루머양산, 불안심리 조성으로 현장을 혼란에 빠뜨리려는 특정세력의 의도에 맞서 흔들림 없이 현장을 지키기 위한 목적이다.

15일 강남과 서부지방본부를 찾은 정 위원장은 “연말대란 및 분사설은 사실무근임”을 재차 확인하며, “안정화를 원하는 현장에 끊임없이 불안심리를 조성하고 뜬소문을 확대 재생산하는 특정세력의 의도와 진정성을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고 선을 그었다.

이어서 “무엇보다 지방본부나 지부장 차원의 안정화 노력이 시급하다”며, “단체교섭을 통해 소기의 성과를 달성했다고는 하나, 특별명퇴 같은 큰일들을 겪으면서 현장정서가 여전히 피폐한 것도 사실이기에, 조합원들과 인고의 시간을 함께 보낸 지방본부와 소속 지부장은 솔선수범하여 현장 조합원을 위로하고 독려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현장 안정화를 위한 위원장의 전국 12개 지방본부 순회는 계속 진행 중이다.

현장 조합원 사무환경 개선을 위한 옷장 대개체 추진

- 현장조합원 사무환경 개선을 위해 다음과 같이 노후화된 철재옷장 등을 연도별 예산을 확보하여 단계적으로 대개체를 추진한다.
- 교체품목 : 옷장 583개
- 소요예산 : 약 1억 6천만원(2014년 10월 15일 기관예산 배정)
 - 계정(집기용품비) 2014년 11월까지 미사용 예산은 회수
 - 비용평가 항목 제외

2014년도 제4차 중앙위원회 개최, 일부 선거관리규정 개정



KT노동조합은 10월 14일(화) 중앙본부 회의실에서 '2014년도 제4차 중앙위원회'를 개최하고 일부 선거관리규정을 개정했다.

이날 회의는 중앙위원 총 24명 중 23명이 참석해 성원된 가운데 규약 33조 2항 및 3항에 의거, 선거관리규정 ▲제22조[개인유인물] ③항 ▲제43조[선거운동] ⑥항의 개정을 심의·의결했다. 개정된 선거관리규정의 핵심은 '조합원 알 권리 충족' 및 '공정한 선거풍토 강화'이다.

이와 관련해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10월 6일(월)부터 8일(수)까지 개최한 워크숍결과 보고서를 통해 △선거관리규정 재검토 △사전선거 행위자에 대한 강력한 제재 필요 △혼탁한 선거 방지를 위한 홈페이지 게시판 일부 기능 제한을 건의한 바 있다.

특히, 중앙선거위는 “선거관리규정을 검토한 결과, 선거관리규정 제22조[개인유인물] ③항 및 제43조[선거운동]⑥항은 조합원의 알 권리를 충족하지 못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어 재검토를 건의한다”라고 밝혔다. 이에 노동조합은 10월 8일(수) 오후 중앙사무집행위원회를 개최해 심층 논의한 뒤, 선거관리규정 개정(안)을 심의·의결하고 중앙위원회를 소집했다.

※ 개정된 선거관리규정 내역은 자료실 [문서/정책]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14년 하반기 창업지원휴직 시행안내



희망자 신청 10/6(월) ~ 10/17(금), BIT ERP 시스템

추진목적
재직 중 창업도전 기회를 제공하여 개인별 역량개발 및 경력전환을 체험할 수 있는 기회 부여

주요내용
■ 지원 자격: 실근속기간 20년 이상 직원 중 희망자

- 최근 6개월 이상 정상 근무자(휴직, 교육파견 등 제외)
- 교육파견 복귀자의 경우 의무복무기간 만료자
- 대상분야: 제한없음(개인이 희망하는 모든 창업분야)

- 휴직기간 및 처우
 - 휴직기간 : 1년6개월 ~ 3년6개월 (의무휴직기간: 1년6개월, 6개월 단위 최대 2년 연장 가능)
 - 급여 : 최초 1년간 월 기준급+역량급 100%만 지급 (이후 기간은 무급휴직)
- 선발절차
 - 신청 : 희망자가 신청서류(창업지원신청서, 사업계획서) 작성 후 시스템 등록
 - 심의위원회 심의 : 예심의(소속기관), 본심의(인재경영실 인사담당)
 - 심의기준
 - ① 1차심의 : 사업계획서 상 사업성, 준비도, 적정성 및 창업가 정신 등을 평가
 - ② 2차심의 : 1차심의 통과자 대상으로 적합, 부적합 검증(결격사유)
 - 협약 체결 : 소속 기관장
- 추진일정
 - 희망자 신청 : 10월 6일 ~ 10월 17일 BIT ERP시스템
 - 1차심의 : 10월 20일 ~ 10월 22일 소속기관
 - 2차심의 : 10월 23일 ~ 10월 24일 인재경영실 인사담당
 - 최종 선정 : 10월 27일 인재경영실 인사담당
 - 1일 워크샵 : 10월 29일 인재경영실 인사담당
 - 협약 체결 : 10월 30일 ~ 10월 31일 소속기관
 - 휴직 발령 : 11월 1일 소속기관

2014년 추계 체육행사 시행안내



- 2014년 추계 체육행사를 아래와 같이 시행할 계획이오니 각 지방본부에서는 소속 지부 실정에 맞게 진행하시고, 특히 행사 당일 조합원의 안전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하시기 바랍니다.
- 기간 : 2014년 10월 6일(월) ~ 10월 31일(금), 기간 내 행사가 불가할 경우 기관장 판단 적의 시행
- 토/일 포함하여 근무시간 외 시행금지
- 대상 : 재직중인 임직원 및 계약직
- 예산 : 1인당 5만원(체육행사비)
- 예산집행 기준준수 및 불참인원에 대한 예산집행 금지 (단, 근무로 인한 불참자는 예외 인정)

- ※ 별도 예산증액 절차 없이 체육행사비 집행 가능
- 행사내용(권장사항)
 - 연극/콘서트 등 공연관람, 스포츠/전시회 관람 등 테마별 문화활동
 - 복지시설 자원봉사, 환경/문화재 보호 등 사회공헌활동
 - 생활체육, 레크레이션 등 건강증진활동
 - ※ 등산 등 운동경기 행사 추진 시 '심폐소생술' 시범
- 기타사항
 - 조직 활성화 차원에서 직원들의 의견수렴을 통해 행사내용 결정
 - 지나치게 과격한 운동은 가급적 지양
 - 안전사고 예방 및 교육 철저 시행
 - 고객서비스에 지장이 발생하지 않도록 기관별로 적의 시행
 - 행사 중 대외 이미지가 실추되는 일이 없도록 각별히 유의

2014년 2차 퇴직연금 중도인출 시행안내



퇴직연금제(DB형) 가입직원 중 법정중도인출 사유를 충족하는 경우 퇴직연금 중도인출을 시행한다.

- 대상
 - 퇴직연금제(DB형) 가입직원 중 법정 중도인출 사유를

- 충족하는 직원(임원, 상무보, 전문컨설턴트/계약직 제외)
- 제외대상
 - 급여/퇴직금 압류자
 - 연대보증을 통해 회사(기금) 대부금을 받은 직원 (단, 10월 10일까지 보증보험 대체 또는 전액상환 완료시 가능)
- 신청유형(택일)
 - DC형 : 전환일 기준 전후 적립금 모두 DC형으로 운용
 - 혼합형(DC+DB) : 전환일 기준 이전 적립금 DC형 + 이후 적립금 DB형 운용

- (법정중도인출 사유)
 - 1) 무주택자인 가입자가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 2) 가입자 또는 부양가족이 6개월 이상 요양하는 경우
 - 3) 가입자가 회생절차개시 결정 또는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 시행일정
 - 금융기관별 신청접수 : 10월 1일(수) ~ 10일(금)
 - DC형/혼합형 전환일 : 10월 29일(수)
 - 중도인출 가능일 : 11월 4일 이후
- ※ 자세한 사항은 자료실 [문서정책]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UCC 분당서울대병원에서 열린 바자회 지원·저소득 환자 치료비 마련 목적



KT노동조합은 9월 24일(수) 분당서울대병원 야외정원에서 열린 '저소득 환자 치료비 마련을 위한 제11회 자선바자회'에 참여했다. 기업 간 노사협의체 UCC 회원사인 분당서울대병원은 경제적 빈곤으로 치료를 받지 못하는 극빈 환자들의 치료비 지원을 위해 교직원 및 외부 후원자들의 뜻을 모아 2003년부터 자선바자회를 개최해 왔다. 내일까지 계속되는 올해 행사에는 kt 노사뿐 아니라 UCC 회원사 노사가 바자회에서 판매 가능한 현물 및 농산물 직거래 연계서비스 등을 후원했으며, KT노동조합은 쌀 10kg 5포대를, 회사는 태블릿 PC 및 kt농구단 티셔츠를 기증했다.

※ UCC (Union Corporate Committee)는 노사문화 혁신과 사회적 책임 실천을 위한 8개 기업 노사협의체다.

휴대형 인터넷품질 측정기 현장 공급



앞으로는 고객 인터넷 속도 측정 시 업무용 PC 대신 휴대형 단말기를 사용할 수 있게 됐다. KT노동조합은 지난해 12월 현장 간담회를 통해 접수된 '인터넷품질 측정기 보급'과 관련해 회사와 지속적으로 협의, 9월 19일(금)부터 9월 26일(금)까지 6,698대가 CS컨설팅팀, Biz지원팀, ITS 등 현장에 배송되도록 조치했다.

노동조합은 업무용 PC로 고객택내 인터넷속도 측정 시 ▲기업비밀 유출 등 보안문제 ▲고객 PC 성능에 따른 속도영향 문제 등이 발생함을 지적해 왔다.

이번에 보급되는 단말기는 초고속인터넷 품질측정 전용단말로 별도

품질측정용 프로그램을 설치하지 않고도, 측정기에 인터넷 선을 연결하면 자동으로 측정된 뒤 측정값을 업무용폰으로 발송하는 장치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고객 PC가 없어도 고객택내에서 인터넷 속도 측정이 가능하며, 고객 PC 성능 및 환경의 영향을 받지 않고 최적화된 측정을 할 수 있게 됐다. 또한, 측정기 크기가 작고 배터리가 내장형 타입이라 휴대도 간편하다.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제도 시행



근로기준법(제74조 제7항) 임신기근로시간단축 개정안이 공표(2014. 03. 24)됨에 따라, 임신 초기·후기 여성 근로자는 하루 2시간 근무시간을 단축하여 근무할 수 있다.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제'는 임신 12주 이내는 유산, 36주 이후는 조산의 위험

- 이 있는 여성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해 도입한 제도이다.
- 대상: 임신 후 12주 이내 또는 36주 이후 임신 여직원
 - 재직기간 상관없이 신청가능, 일반계약직 포함
 - 근로조건
 - 일 6시간(주 30시간)
 - 시종업시간: 아래 유형 중 택1
 - A_type : (08:00 ~ 15:00)
 - B_type : (09:00 ~ 16:00)
 - C_type : (10:00 ~ 17:00)
 - D_type : (11:00 ~ 18:00)
 - ※ 휴게시간(점심시간) 1시간 포함
 - 인사, 보수 및 복무에 관한 사항은 정상근무 시와 동일기준 적용
 - 시행일: 2014년 9월 25일
 - ※ 자세한 사항은 자료실 [문서/정책]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KT그룹노조, 금융노조 총파업 결의대회 참가



KT노동조합 및 그룹사 조합간부 100여 명은 9월 3일(수) 전국IT사무서비스노동조합연맹 소속 조합간부들과 함께 목동운동장에서 열린 '금융노조 총파업 선포식'에 참가했다.

총파업을 선언한 금융노조는 "이번 파업은 2000년 이후 14년만의 금

용권 총파업으로, 37개 지부 조합원 6만5천 명이 참여한다"고 밝혔다. 금융노조는 ▲관치금융 철폐 및 낙하산인사 저지 ▲금융산업 재편 등 구조조정 분쇄 ▲정부의 노사관계개입 분쇄 및 복지축소 저지 ▲고용안정 및 근로조건 개선 등을 요구하고 있다.

경조금(축의금) 지원범위 확대에 따른 신청방법

- 주요내용
- | 구분 | 대상 | 지급액 |
|----|--------------|------|
| 기존 | 회갑/칠순(택1) | 30만원 |
| 변경 | 회갑/칠순/팔순(택1) | |
- ※ 직계 존속(외가제외) 및 배우자 부모의 팔순은 주민등록기준 만 79세 도달일로 하고, 신청기한은 사유발생일로부터 1년 이내로 함 (2014년 기준 팔순(만 79세) : 1935년생)
- 신청 가능일 : 9월 1일 이후 (시스템 개발 중)
 - 신청방법 : BIT-ERP → HR → 개인업무 → 복지후생 → 경조금 → 경조금 신청

현장 근무환경 개선 추진 - 공기청정기, 제습기 등 노후비품 교체

노동조합에서 지난 현장 간담회 때 수렴한 건의사항 중 사무실 노후비품/복지시설을 다음과 같이 교체했다.



- 대상품목 : 공기청정기, 제습기
- 교체내역
 - 공기 청정기 : 111개 기관, 165개
 - 제습기 : 7개 기관, 11개
- 추진방법 : 일괄 구매후, 해당기관에 배송 (경영지원팀)
- 교체시기 : 2014년 9월 말까지

2014년도 제3차 중앙위원회의 및 제4차 산하조직대표자회의 개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구성에 관한 안건 가결 등 현안사항 논의

KT노동조합은 2014년도 제3차 중앙위원회의를 열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구성에 관한 안건을 심의·의결했다. 이날 회의는 중앙위원 24명이 전원 참석한 가운데, 선거관리규정 제7조, 제8조에 의거 지난 4월 특별 명예퇴직으로 인한 중앙선거관리위원 공석(4인)을 충원하기 위해 열었으며, 후보명단을 검토한 끝에 만장일치로 가결했다.

중앙위원회의에 이어서 2014년도 제4차 산하조직 대표자 회의를 열고, C&R 업무통합 노사합동실태조사 결과 및 현안사항도 논의했다. 노동조합과 회사는 지난 8월 13일(수)부터 19일(화)까지 17개 기관의 C&R 실태조사를 진행했고, 업무통합 때 지역특성에 맞는 운영과 관련 지침이 필요하다는 건의에 따라 ▲인력운영은 사전협의를 거쳐 지사장이 판단해 시행하도록 하되, 최소 1~2명의 인력이 잔존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인력이동 시 출퇴근환경을 고려해 전진배치하며 ▲지사로 인력을 집중화할 경우 통합사무실을 구축하고 ▲주요업무별 R&R을 명확히 규정할 것 등을 협의했다.

한편, 무선가입자 증대를 위해 8월 27일(수)부터 9월 17일(수)까지 LTE/3G(신규, MNP, 기번)을 대상으로 하는 GBT 이벤트 시행에 따른 조합원들의 자발적인 참여와 강제권유는 금지하는 내용에 대해서도 공유했다.

네트부문 노후공용 PC 대개체 및 C부문 현장 업무용 PC 신규공급 추진

네트워크 부문 시스템 유지보수 및 망 관제용 노후공용 PC, 1,168대 대개체

노동조합은 네트워크부문 시스템 유지보수 및 망관제용 노후공용 PC 대개체를 회사에 촉구해 7월 말까지 1,168대를 보급했다.

이는 지난해 750대 대개체에 이은 것으로 올해 4월~5월 현장조사를 거쳐 보안

사고 위험이 큰 시스템 유지보수 및 망관제용 공용 PC 1,168대를 우선 공급하도록 조치한 것이다.

특히 이번 대개체는 올해 명예 퇴직자 반납 PC(2013년 8월 생산 원도7 운영체제)를 저가 매입해 활용한 것으로 노후장비에 대한 현장 애로사항을 빠르고 효율적으로 해소할 수 있었다.

커스터머 부문 Biz 지원팀에 9월 말까지 현장 업무용 PC 신규 공급 이어, 노동조합은 지난 7월 현장간담회에서 커스터머 부문 Biz지원팀의 ▲현장 업무용 PC 노후화 ▲1인 1PC 보안문제 등이 건의사항으로 접수되자, 현장조사를 거쳐 ▲현장 노후 PC 처리방안 착수 ▲1인 1PC 사용직원 정보보안 문제 해소방안 마련 등을 회사에 촉구했다.

이에 최근 노사는 커스터머 부문 Biz 지원팀에 업무용 PC 224대를 신규로 공급하고, 내년 상반기에 추가로 225대를 공급하기로 협의했다.

생존 비상 걸린 현장의 사기 진작 위해 “비상구를 찾아라!”



2014년 단체교섭에 임하는 노동조합 집행부의 각오는 사뭇 비장했다. 현장은 지난 10여 년을 견뎌오느라 생존 비상이 걸릴 정도라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단체교섭에 들어가기 앞서 노동조합 정운모 위원장은 “올해 집행부 3년차 단체교섭은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는 절박한 현장 요구를 모아 전개한다”며, “노동조합 교섭위원들은 현장 실태조사와 간담회 내용을 밑바탕으로 조합원들의 절실한 요구에 철저히 정당성을 부여하고 죽을 각오로 싸움에 임한다는 필사적 자세를 가져야 한다”고 주문했다.

단체교섭 전담반, 집체교육 시작으로 노동조합 교섭전략 점검



단체교섭 승리를 위한 현장간담회 진행

KT노동조합은 8월 27일(수)부터 29일(금)까지 단체교섭 전담반 집체교육을 실시했다. 전담반에 참여한 교섭위원들이 2박 3일간의 집체교육을 통해 2014년 단체교섭에 임하는 노동조합의 교섭전략을 최종 점검하는 것이다. 교섭 위원들은 2박 3일 내내 노동계 동향분석은 물론 kt

현 이슈사항 점검하고 현장 고충사항 및 설문조사결과 공유하는 등 빠듯한 시간을 보냈다. 뿐만 아니라 교섭위원들이 역할을 나눠 모의교섭을 진행하며 실전에 대비하기도 했다. 이와 관련하여 정운모 위원장은 “앞서 여러 번 강조했듯이 올해 단체교섭의 기본 방향은 현장 사기진작”이라 재차 강조하고, “이에 맞춰 교섭위원들은 그 동안 현장조사를 통해 준비해 온 노동조합 요구가 설득력 있게 전달돼 좋은 결과를 도출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주문했다. 그뿐만 아니라, 정 위원장은 “kt 상황뿐 아니라 노동계 전반에 대한 이슈검토도 간과해서는 안 될 부분”이라며, 폭넓은 접근을 지시했다.

2014년 단체교섭 요구(안) 확정

교섭위원들은 교육결과를 바탕으로 노동조합 기본입장을 최종 정리했다. 이를 바탕으로 KT노동조합은 9월 1일, 중앙상무집행위원회의를 열고, 2014년 단체교섭 요구(안)으로 3개 분야 9대 요구안을 최종 확정했다.

이날 회의는 중앙상무집행위원 20인이 모두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으며, 임금·복지·제도 개선에 대해 열린 토론 끝에, 기준연봉월정액 8.1% 인상을 포함한 3개 분야 9대 요구(안)를 최종적으로 가결했다. 9대 요구(안)는 현장 간담회 및 설문조사 결과를 기반으로 했으며, 11대 집행부 3년차 현장의 최소 요구를 담은 것이다.

이에 따라 노동조합은 단체교섭 시작과 함께 “비상구를 찾아라”를 슬로건으로 ▲생zone(임금) ▲자부감zone(제도) ▲공리zone(복지) 개선을 기본방향으로, 2014년 단체교섭을 승리로 이끌기 위한 절치부심에 들어갔다.

그 동안의 경영실패, 경영진 아닌 현장이 책임져 왔다



2014년도 단체교섭 1차 본회의

드디어 교섭이 시작됐다. 노동조합은 9월 2일 개최한 2014년도 단체교섭 1차 본회의가 열리자마자, 노동조합의 9대 요구를 일괄 상정시키고, 현장의 고충을 바탕으로 임금인상 당위성을 피력했다.

정위원장은 모두 발언을 통해 “지난 3년간 현장을 순회하며 많은 조합원들을 만났지만, 올해는 특히 참담한 마음을 감출 수 없었다”고 밝히며, “8천명 이상 동료들을 내보내고 넘치는 일을 감당하느라 피로도가 극에 달해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노동조합이 요구하는 9대 안에 대한 회사의 진심 어린 화답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사측 교섭위원들을 거듭 압박했다. 임금 인상을 포함한 임금·복지·제도개선 9대(안)는 지난 10여 년을 견뎌 온 현장의 최소 요구임을 분명히 한 것이다.

노동조합 교섭위원들은 황창규 회장 취임 후 많은 기대가 있었으나, 7개월이 지난 현재 확인된 것은 대규모 특별명퇴와 복지후퇴뿐이지 않느냐고 압박하며, 조합의 9대 요구를 일괄 상정시켰다. 교섭위원들은 영업이익 1조, 당기순이익 2조가 넘을 때도 회사는 항상 어렵다고만 했다고 지적하며, 2008년~2013년 물가

상승률은 18%인데, kt 임금은 4.7% 인상돼, 실질임금 인상율이 -13.3%에 달한다고도 지적했다. 이어 조합은 회사는 경영실패의 책임을 경영진 교체로 해소했다고 판단할지 모르겠으나, kt의 경영실패는 실상 현장에서 임금동결·연차반납·상품판매로 보전해 왔다고 되짚었다.

노동조합은 계속해서 현장고충을 피력한 뒤 회사가 고객 최우선 경영, 권한위임을 강조하려면 일단 임금인상, 제도적 장치로 출구부터 마련해줘야 할 것이라 강조했다.

임금 및 제도개선·복지 실무소위원회 통한 현실적 접근



임금 및 제도개선 실무소위원회 속개

KT노동조합과 회사는 9월 3일부터 임금 및 제도개선 실무소위원회 첫 회의를 연 뒤, 연이어 오후 3시에는 복지 실무소위원회를 열고 노동조합 9대 요구에 대해 집중하여 논의를 시작했다.

노동조합은 임금 및 제도개선 실무소위원회를 통해 ▲기준연봉월정액 8.1% 인상 ▲성과보로금 200만원 지급 ▲급식통근비 상한폐지 ▲초과근무가산금 기준완화 ▲근속승진 도입 등 승진에 따른 보상강화 ▲성과급 차등폭 축소 ▲성과급 중 기준급 600%를 통상임금화 ▲팀성과급 폐지를 요구하며, 이와 함께 오랫동안 정제된 야식비의 현실화를 촉구했다.

또한, 노동조합은 “연차반납하고 호주머니 털어 영업비용 부담하는게 현장의 현실”이라고 개탄하며, “조합원들의 소박한 바람을 담은 9대 요구 관철로 자긍심의 씨앗을 심어주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회사측은 임금인상은 어렵다는 주장을 되풀이하면서도 초과근무가산금의 기준완화는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는 선에서만 답변했다.



복지 실무소위원회 속개

회사측의 원론적인 대답에 지친 노동조합 교섭위원들은 회사 안에서 너무 미흡해서 어이가 없을 지경이라며 ‘황창규 대표위원께서 첫 회의 때 과거와 달리 소모적 논쟁을 줄여 진행하자고 하셨는데, 과연 실무소위원회에



2차 본회의 속개

살만할 때나 가능한 이야기라고 일갈했다.

이후 노동조합과 회사는 본교섭은 물론 실무소위원회, 축조심위 등을 열어 사안을 논의했으나 지난한 공방만 되풀이됐다.

이제는 회사의 참주인인 조합원에 투자할 때

교섭을 진행하면서 노동조합 교섭위원들이 가장 강력히 성토한 것은 회사의 적자사정과 통신시장의 어려움 때문에 조합의 모든 요구를 수용하기 힘들다는 대답이다.

조합 교섭위원들은 사측 교섭위원이 '이전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회사 사정이 정말 어렵다'고 할 때마다 언론과 외부에서는 kt가 BIT 구축으로 글로벌 소프트웨어 회사들만 먹여 살렸다고 떠들었다며, 초기 3천억이 예상됐던 비용이 1조까지 올라갔는데도 결국 실패한 시스템이 됐다고 꼬집었다. 이어 확실한 시스템에만 투자할 것이 아니라 임금보전 등 현장에 대한 투자부터 선행되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나 회사는 여전했다. 회사측은 노동조합이 요구한 임금인상과 통상임금만 적용해도 평균 12% 인상에 달한다며, 좀 더 현실적인 이해가 필요하다는 답변만 늘어낼 뿐이었다.

거듭된 공세에 회사, '연말 대란 없다' 확답

노동조합 요구안 소폭 진전

공방과 갈등이 계속됐지만 어떻게든 교섭을 마무리해야만 했다. 노동조합과 회사는 단체교섭 복지실무소위원회를 이어갔다. 이날 회의에서는 먼저, 지난 9월 3일(수) 개최한 복지실무소위원회 이후 정리된 회사측 입장을 공유했다.

회사는 '복지기금 출연은 전년도 순이익 적자로 어려운 상황이나, 노사합의사항 존중과 사기진작을 위해 목적사업 범위 내 출연검토, 업무용폰 지급 긍정검토, 복지기금 내에서 대부제 신설 긍정검토, 체육행사비 4만→6만원, 건전모임비 인상 긍정검토, 의료비 3만→1만원 초과분부터 지원 심층검토, 매년 자기계발비 100만원 지급 여건상 수용불가, 일체복 지급 수용불가 등의 입

장을 밝혔다. 이에 노동조합은 '회사는 복지관련 조합의 8개 요구 중 6개에 대해 긍정 검토라고 주장하지만, 어느 것 하나 만족할 만한 수준이 아니다' 는 뜻을 분명히 하고, 회사가 수용불가 뜻을 내비친 자기계발비와 일체복 지급에 대해서도 긍정적으로 재검토할 것을 피력했다.

특히 "회사는 자기계발비 지급이 인건비 상승효과가 있어 어렵다는 입장을 반복하고 있으나, 실상 어려운 때일수록 자기계발비를 정례화해 장기적으로 더 큰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사기를 북돋아야 하며, 지급이 바로 그 절실한 시기"라고 강조했다. 노동조합은 이후 첫 실무소위 이후 진행한 5차례의 축조심의 결과에 대해서도 회사측을 강하게 성토했다.

인사 및 보수규정 축조심 의 결과를 짚어보면, 조합은 열린 자세로 회사측 의견에 귀를 기울였으나, 회사는 조합요구에 대한 긍정적 태도가 매우 부족하다고 느꼈기에 나온 반응이다.

보름이 넘는 긴 논쟁과 공방 끝에도 별 성과가 없자 노동조합은 임금인상을 비롯한 노동조합 9대 요구에 대해 이토록 진전이 없다면 실무소위를 더는 진행할 이유가 없다고 못 박고, "kt처럼 각종 루머와 뜬소문이 많은 곳도 없다"며 "연말 대란설, 분사설, 구조조정설이 돌고 있는 것을 과연 황창규 대표위원은 알고 있는지, 또 이런 소문이 돌 때마다 경영진은 누구 하나 수습이나 해명한 적 있느냐"고 공분했다. 거듭된 공세에 회사는 "연말 구조조정이나 분사 계획 등 대란은 없다"고 거듭 해명했다.

2014년 단체교섭 협정 체결

임금인상, 대부제신설, 폭넓은 제도개선 등 이끌어내



단체교섭 가협정(안) 현장설명회 개최

노동조합은 회의를 거듭할수록 벽을 느꼈다. 회사의 긍정적 입장변화가 요원해 보였기 때문이다.

노동조합은 요구 수용 없이 알맹이 빠진 회의

만 거듭되자 '지금까지 본회의 3회, 임금 및 제도개선 실무소위원회 3회, 복지 실무소위원회 3회 및 밤낮 가리지 않고 축조심의를 진행해 왔으나, 조합요구에 대한 만족할만한 답변을 듣지 못했다'고 성토했 뒤 차라리 본회의를 폐회하고 최종적으로 사측 황창규 대표위원의 통 큰 결단에 맡기겠다고 선언했다.

회사가 끝까지 성의 있는 태도를 보이지 않는다면, 노동조합은

직권중재 절차를 밟을 수밖에 없는 우려스러운 상황을 염두에 둔 한 수였다. 그러나 올해 단체교섭이 잘 마무리되도록 인내심을 가지고 열린 마음으로 소통의 창구는 열어둔 채였다.

본교섭 폐회 후 정윤모 위원장은 중앙상무집행위원을 소집해 "이 시각 이후 회사의 태도 및 입장변화를 예의주시할 것"이라며, "중앙상집은 2014년 단체교섭이 마무리될 때까지 현장의 동요가 없도록 긴장의 끈을 놓지 말 것"을 당부, 또 당부했다.

회사의 입장변화가 나온 것은 25일. 회사는 전부는 아니지만 상당한 항목에서 조합의 요구를 수용했고, 가협정안에 대한 조합원 총회 결과 87.44%의 찬성으로 가협정안이 가결되자 드디어 KT노동조합과 회사는 10월 1일(수)에 2014년 단체교섭 협정을 체결했다.

이날 정윤모 위원장은 중앙상무집행위원 미팅과 산하조직대표자회의를 연달아 주재하며 "아쉬운 마음도 없지 않지만, 올해 회사와 통신시장 환경을 고려하면 상당한 성과"라고 설명한 뒤, "2014년 단체교섭 결과가 노사상생 및 현장안정화를 위한 값진 희망의 불씨가 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하자"고 독려했다.

이로써 단체교섭 요구부터 체결까지 한 달이 넘는 힘겨운 여정이 모두 끝났다. 올해 단체교섭은 회사가 적자와 외부 시선을 내세우고 동시에 유무선사업이 구조적으로 안정화되지 않은 상황에서 개최되어 쉽지만은 않은 싸움이였다.

그러나 2달간의 현장간담회와 설문조사를 통해 확정된 노동조합 요구에 대해 그간 현장에서 많은 관심과 지지를 보여주었고, 이는 노동조합에 가장 큰 힘이자 에너지였다.

아쉬움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기준연봉 2% 인상, 성과보로금 100만원 지급, LTE천만돌파기념 상품권 20만원 지급, 매년 자기계발비 50만원 지급, 업무용폰 구입비 50만원 지원, 긴급자금대부제도 신설이라는 소기의 성과를 통해 미력하나마 조합원들의 가계에 숨통을 틔우게 된 셈이다.

노동조합은 앞으로도 현장 안정화를 위해 각종 애로사항이 노사협의로, 나아가 큰 틀의 제도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현장의 목소리와 업계, 노동계와 정부 움직임에 민첩하게 대응해 나갈 것이다.

2014년 단체교섭 협정 주요내용

임금

1. 기준연봉 2% 인상(평균 고과인상분 2.7% 별도)
2. 성과보로금 일시금 100만원 지급
3. LTE 가입자 1천만 돌파기념 상품권 20만원 지급

복지

4. 매년 자기계발비 50만원 지급
5. 일체감 조성 및 업무편의성 제고
 - 30만원 상당 아웃도어 일체복 지급
 - 업무용폰 구입비 50만원 지급
6. 비현실적 복지 현실화
 - 체육행사비 연4만원 ▶ 10만원
 - 건전모임비 연2만원 ▶ 5만원
7. 복지상향
 - 초과근무가산금 지급기준 15일 ▶ 13일로 완화
 - 의료비 지급기준 개선 : 월 3만원 초과 ▶ 2만원 초과 (비급여항목 중 초음파검진비 30% 지원)
 - 긴급자금대부제도 신설 : 1인당 1천만원, 연 2%
8. 사내근로복지기금 520억원 출연

제도개선

9. 인사규정 개선
 - 등급개선 6단계 ▶ 5단계(S/E/G/N/U) 축소
 - 10년이상 현장 고성과자 대상 승진우대방안 마련
 - 고과총량제 범위 상,하한 10% ▶ 20% 확대
 - 전직원 동시평가 ▶ 직급/직분별 평가 및 단계 축소
 - 인사평가인상을 3분위 ▶ 2분위 축소, 평균인상률 2.7%유지 (3년 누적고과적용 ▶ 전년도 100% 적용)
 - 고과평가 상,하반기 실시 ▶ 연1회 축소
 - 인사평가에 따른 급여인상 차년도 1월부터 즉시 반영
 - 직급승진 보상(6.16일자~ 소급 지급)
 - 목표달성가능 PS제도 시행
 - 순직공상자 우대제도 대폭 개선
10. 보수규정 개선
 - 팀성과급 폐지
 - ※ 성과급 통상임금화, 기준급, 역량급 통합 등의 임금 체계개선은 추후 관련법 개정 이후 재논의

11대 집행부의 3년 해묵은 명분주의 탈피, KT노동조합만의 방향 모색



조합원 실의 위한 쉽 없는 현장과의 소통

KT노동조합 11대 집행부의 다사다난했던 시간이 어느덧 3년을 채워가고 있다. 11대 집행부는 <변화하고 소통하는 강한 노동조합 건설>을 기치로 출범하여 지금까지 일방적인 의사전달이나 가르침이 아닌 경청하는 위원장, 소통하는 노동조합을 표방해왔다. 노동조합 11대 집행부는 그러한 맥락의 일환으로 취임 초기부터 지난 3년 동안 왕성한 현장순회 활동을 펼쳤다. 조합 일상활동과 별개로 12개 지방본부 240여 지부를 찾아 조합원들을 격려하고 간담회 주도했다. 말보다 행동하는 노동조합을 위해 전력질주 해 온 것이다. 정윤모 위원장과 집행부는 현장 조합원뿐 아니라 회사 관리자들과의 자리를 마련해 적극 소통을 시도했다. 현장에서 회사 관리자들과 만나서는 현장의 애로사항을 즉시 시정할 것을 주문했다. 이는 현장이 없는 회사는 미래가 존재할 없다는 정위원장의 평소 소신에 의한 것으로 회사 관계자에게 먼저 현장에서 땀 흘리는 조합원 입장에서 운영해 줄 것을 요구한 것이다. 정윤모 위원장은 취임과 동시에 비능률적 무급휴일근무 철폐, 지역 단별 프로모션 금지를 선언하

며 연중 현장 불시점검을 감행한 바 있다. 이는 노동조합의 현장 위주 정책이 한 두 번의 보여주기 식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3년에 걸쳐 장기적으로 안착할 수 있도록 주력한 것이다. 또한, 간담회를 통해 건의사항은 바로 지방본부와 중앙에 보고했으며 이를 바탕으로 회사에 정책협의를 요구해 수백 건의 제도개선을 이끌어냈다. 특히 정윤모 위원장은 기존 폐쇄적인 교섭문화를 탈피하고자, 중앙상무집행위원들에게 현장의 알 권리에 충실할 것을 당부했다. 정 위원장은 노동운동과 노동조합이 가장 두려워해야 하는 것은 조합원들의 무관심이라며, 탁상공론이나 대안 없는 비난은 누구든 할 수 있지만, 대안을 모색하기 위해 발 빠르게 행동하는 것이 조합원들이 원하는 조합의 역할이라 강조했다. 따라서 단체교섭이 시작되기 전에는 현장의 목소리와 의견을 취합하고 단체교섭이 끝난 후에도 현장설명회를 통해 조합의 입장을 가감 없이 알리는데 소홀함이 없었다. 이러한 진정성 있는 행보는 현장의 공감과 격려를 이끌어냈다. 무엇보다 현장순회와 간담회에서 나온 건의사항에 대해 빠른 피드백으로 신뢰를 쌓았으며, 지난해 2달간의 주파수 투쟁은 KT노동조합의 지



정윤모 위원장 현장순회 활동



주파수 부당경매 철폐촉구 투쟁



UCC 한국-베트남 화상상봉

력과 지향점을 대내외에 주시시키는 계기가 되기도 했다. 특히, 외부로부터 노동조합과 회사가 좌지우지되는 것을 방지하고, 더욱 강한 노동조합을 건설하기 위해 한국노총에 가입했다. 이를 계기로 KT노동조합의 위상과 통신·노동계에서의 영향력을 인정받은 정윤모 위원장은 전국IT사무서비스노동조합연맹 위원장에 선출되어 경쟁사까지 아우르는 명실공히 5만 IT 노동자의 대표로 대정부교섭력 강화에 나섰다.

일상적인 노사협의 통해 복지제도 정비

노동조합은 수 백억에 이르는 사내복지자금 출연 외에도 일상적인 노사협의를 통해 복지제도를 정비해 나갔다. 이미 제도화한 △조합원 가족대상 의료행사 △중학생자녀 무료인터넷교육 △복지포인트 지급 △경조금 지급 △상조회비 지원 △리프레시휴

직 △통신비 지원 △창업지원후직 △직장단체보험 가입 △체육행사 △건강검진 △하계휴양소 운영 외에도 △조합원 위로금 인상 △노후된 업무용PC교체 △상호부조제도 개선 △노동법 개정 에 따른 육아기 근로 시간단축제도 시행 △대부금 채무이행 프로세스 합리화 △의료비 지원 제도 현실화 △직원자녀 대상 글로벌 어학연수 등등을 추진했다. 올해부터는 단체교섭 체결에 따라 매년 자기계발비 50만원, 업무용폰 구입비 50만원 지원, 초과근무가산금지급기준을 13일로 완화, 의료비지급기준을 2만원 초과로 완화하고 기존의 대부제도 외에 긴급자금대부제를 추가 신설하기도 했다. 노동조합은 이의는 별도로 하계휴양시설, 구내 식당 등 복지후생시설 위생관리 등과 관련하여 회사에 현장점검을 요구, 노사합동 실태조사를 수 차례 진행하기도 했다.

현장 건의사항에 따른 정책 추진과 홍보활동

KT노동조합 11대 집행부 정책활동의 차별점은 일상적으로 현장 건의사항 접수 후 실태조사, 협의요구, 제도개선을 끊임없이 진행했다는 것이다. 노동조합은 단체교섭이나 복지제도와 같은 굵직굵직한 협의 외에도 회사측 실무진과 정책협의를 생활화해 홈페이지나 유선 등을 통한 현장요구에 민첩하게 대응했다. 현장 조합원의 요구와 편의를 위한 11대 정책 활동은 기존의 제도 외에도 2014 단체교섭 체결에 따라 수 많은 제도를 개선했으며 더불어 통상임금 등 노동계 변화를 예의 주시하며 국내외 토론회에 참석하는 등 다양한 정책활동을 전개했다. 홍보채널을 다각화해 적극적으로 소통의 포문을 연 것도 11대 집행부의 특색이다. 노동조합은 먼저 홈페이지에 '열린 위원장실'을 개설해 신문의 고의 역할을 대신했고, 일일소식지를 매일 현장에 전달했으며, 책자형 노보 <길>을 보강해 조합원에게 한층 친근하게 다가가려 애썼다. 연대와 사회공헌활동에도 책임을 다했다. 기업간 노사협의체 UCC는 3년 연속 한-베트남 다문화 가정의 화상상봉을 추진하여 한-베트남 양국 우호증진과 교류에 이바지했다. 세미나와 정보교류를 통해 각국의 통신·노동조건을 향상시키고자 NTT노동조합, 중화통신노동조합, 베트남우편노동조합, 유니아프로 (UNI-APRO)정보통신 분과위원회에 참석하여 꾸준히 발전을 꾀하고 있기도 하다.

KT노동조합 11대 집행부는 오늘도 조합원의 권리를 향상시킬 수 있는 힘 있는 노동조합, 전문화된 노동조합을 만들어 노사가 동등한 관계에서 토의하고 그 결과를 현장정책에 반영할 수 있는 토양을 만들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고 있다.

첨단 정보통신기술, 2014 인천아시아경기대회와 함께 뛰다!

kt, 인천아시아경기대회 경기 방송 전송 인프라 구축



45억 아시아인의 축제인 2014 인천아시아게임이 9월 19일부터 10월 4일까지 개최됐다. 45개국, 약 1만 5,000명의 선수 및 관계자들이 참가한 인천아시아게임은 특히 최신 IT기술을 적용한 한 차원 높은 첨단대회로 평가받는 가운데, kt는 이번 대회에 방송 중계 지원 등을 통해 다양한 국제행사를 치른 노하우를 제공했다.

아시아경기대회는 전 세계 절반 이상의 인구가 주목하는 국제적인 스포츠 행사다. 그만큼 이번 대회운영과 참가자들의 편의를 위한 각 조직위원회와 후원사들의 노력은 한국 선수단의 투지 못지않았다. 17회를 맞이하는 이번 아시아경기대회는 16일에 걸쳐 인천 및 주변지역 49개 경기장에서 36종목이 진행됐다. 운영요원 3만여 명에, 삼성전자, 현대·기아자동차, 대한항공, 신한은행, SK, 그리고 중국 의류브랜드인 361° 등 가장 높은 스폰서 등급의 6개 기업 후원금만 약155억 규모를 자랑한다. 무엇보다 정보통신기술을 접목한 첨단대회로 기대를 모았던 이번 아시아경기대회에서 kt는 주관통신사인 SK텔레콤과 함께 각 경기장으로부터 국제방송센터(IBC)까지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방송용 코덱장비 설치를 위한 운용인력을 지원했다. 또 방송망 외에

도 일반전용회선과 보안회선, 경호회선 등을 구축해 경기 진행을 원활하게 관리하고, 문학경기장과 국제방송센터의 24시간 비상상황에 대비해 긴급복구 인력도 배치했다. 대회 기간 동안 국제방송센터 내 CDT 주조정실에서 방송기술 업무를 담당했던 kt강북네트워크운용본부 서울동부유선운용센터 방송기술팀 한의석 조합원은 “대회 주관통신사인 SK텔레콤은 IT통신 및 방송 등 전반적인 서비스를 제공함에 있어 방송중계 경험이 없고 방송 장비가 부족한 것이 현실”이라며 “상대적으로 국제대회 방송 중계 경험이 풍부한 kt가 공조함으로써 행사에 만전을 기했다”고 설명했다. 대회 방송의 중심지였던 송도컨벤시아 내 국제방송센터에는 국내외 방송 관계자 6,200명이 상주했다. KBS와 MBC가 공동으로 설립한 아시아경기대회 주관방송 IHB는 국내외 19개 제작사의 57개 제작팀을 동원해 총 72개 피드의 중계영상을 제작했는데, IHB가 제작한 중계영상은 방송권을 가진 아시아 각국 방송사와 월드와이드 스포츠채널을 통해 아시아 전역과 세계 주요국에 실시간으로 생방송됐다. 각 경기장에는 중계차 54대와 카메라 505대를 투입해 제작된 스포츠 영상신호를 최첨단 디지털 방송시스템을 구축한 국제방송센터로 모아서 각 방송사가 위성과 광케이블을 이용해 자국으로 전송하는 방식이었다.

이때 경기장 중계차에는 kt와 SK텔레콤이 3인 1조로 임무를 수행했다. 압축시스템과 비압축시스템의 두 가지 방법으로 방송회선을 구성하고, 모든 경기장에서 생생하게 촬영된 경기장면을 국제방송센터까지 전달하면 센터에서는 피드(Feed, 종목별 제작채널)를 받아 다시 IHB로 전달하고, 만일 품질에 문제가 있는 경우라면 그 측정 구간을 찾아냈다.

이번 대회를 위해 kt는 전국 지부의 방송기술팀이 총 동원되는 등 100여 명의 조합원들이 전격 배치됐다. 국제방송센터는 방송요원 3명을 포함, 10명의 수도권지역 방송기술팀이 담당하고, 경기장 중계차는 대구, 충청, 강북 일부와 인천네트워크, 서부biz팀 등에서 임무를 맡아 첫 방송이 시작되는 오전 7시50분부터 밤 11시35분까지 숨 가쁜 하루를 보냈다.

한의석 조합원은 “방송기술팀의 인원이 부족해 인천네트워크 등에서 충원된 인원들을 따로 4차에 걸쳐 교육을 진행해 현장에 배치했다. 또, 국제방송센터에서는 각 경기장을 일일이 챙기는 것이 힘들고 경기장에서는 해당 경기에만 집중해 서로 커뮤니케이션이 힘들 때도 많았다”고 당시 진행의 어려움을 토로하며, 하지만 조합원들의 노력으로 아무런 차질 없이 무사히 대회를 마칠 수 있었다고 했다.

이번 인천아시아경기대회는 특히 우리나라에서 치른 국제행사 가운데 디지털 방식으로는 경기장이나 필드 숫자 면에서 월드컵을 제외하고 가장 큰 대회 규모다. kt는 이번 대회를 통해 주관 방송사 여부를 떠나 가장 안정화된 기술력과 행사 노하우를 지원할 수 있다는 사실을 재입증한 계기가 됐다. 이후, 인천아시아게임이 끝나고 10월 18일부터 24일까지 일주일간은 42개국 6000여 명이 참가한 가운데 장애인아시아경기대회가 곧바로 이어졌다. kt는 앞서 인천아시아게임에 사용됐던 시스템을 견어내고 새로운 경기 진행에 맞춰 경기장 시스템을 다시 구축하는 등 남은 지원을 이어갔다. kt는 이번 인천아시아경기대회에서 기술적인 지원 외에도 안내 대기시간을 활용해 ‘스



서울동부유선운용센터 방송기술팀 한의석 조합원

포츠로 하나되는 대한민국, 114가 응원합니다’라는 응원메시지도 전달했다. 또한 중계서비스도 제공, 유료방송 사업자들이 제공하는 모바일 IPTV인 ‘올레 tv모바일’의 ‘올레 기가파워라이브’를 통해 데이터 과금 없이 서비스를 제공했다. 올레 기가파워라이브는 kt가 삼성전자와 함께 세계 최초로 개발한 시스템이다. LTE 동시 동영상 전송기술을 적용해 동시접속 자수에 상관없이 DMB의 10배 수준의 고화질 영상을 끊어짐 없이 제공하며, 별도의 LTE데이터 차감도 없다. 중계서비스는 지하철 2호선 순환구간 전체 43개역사와 광화문, 시청, 명동, 종로, 청계천, 상암구장, 잠실구장, 올림픽공원 등 총 8곳의 고객 밀집 지역에서 삼성 갤럭시S5, 갤럭시S5 광대역LTE-A, 갤럭시 노트3 단말을 가진 고객들에 한해 이용할 수 있었다. 한편, kt는 오는 2018년 평창동계 올림픽의 통신 주관사로 선정됐다. 지금까지의 다양한 국가행사의 경험으로 특히 방송분야에 뛰어난 경쟁력을 갖춘 만큼, 평창동계올림픽에서 그 저력이 또 다시 증명되리라 기대한다.

인간 본위의 ICT 생태계 구축을 위한 연대

IT산업 노동자의 구심점, 전국 IT사무서비스노동조합연맹



전국IT사무서비스노동조합연맹 정기대의원대회



9·3 총파업 성사를 위한 금융노동자 총파업 진군대회



9월 회원조합 대표자 회의

통신산업 변동의 핵심 추진력은 빠른 기술변화와 수요변화라고 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사용자들은 고용환경의 유연화를 피하게 되고 인력관리와 노사관계 사이의 모순을 피하기 위해 비핵심 업무를 외주화 한다. 특히 이동통신시장의 경우는 그 가속화가 더욱 심해 이미 핵심 기획, 연구, 관리 업무를 제외한 거의 모든 업무가 외주화 되었다. 그러나 모회사와 하청회사 사이의 관계는 다른 산업부문과 차별된 매우 긴밀한 하청구조를 형성하고 있다.

사실상 모회사의 이름으로 서비스를 하는 하청회사는 고객에게 모회사와 동일시 되며 모회사와 여러 하청회사와의 관계는 지원과 통합, 지배·종속, 통제 등으로 이뤄진 중층적인 구조로 이뤄져 있다. 그러나 통신노동자들은 각기 다른 사용자의 소속으로 차별화된 인사와 고용관계를 맺고 있어 기업별 노동조합으로는 대응의 한계가 있다. 각 통신기업들은 모회사의 지휘아래 유기적으로 움직이며 이미 고용까지도 영향을 미치고 있어 단위 기업 노동조합만으로는 노동자들의 권익을 옹호하기는 어렵기 때문이다. 또한 유무선 통합 환경에 따라 기업들의 변화와 움직임은 더욱 가속화되고 있다. 당연히 이러한 기술변화에 따라 고용환경은 날로 첨예화되는 것이 현실이다.

이에 단일한 통신노동자의 구심점을 건설해 기업별 노동조합의 한계를 극복하고 사용자와 정부의 잘못된 경영 및 통신정책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었다. 그렇게 탄생한 것이 바로 전국IT사무서비스노동조합연맹이다.

단일 조직구성으로 고용 안정화 노력

정보통신시장 특히 통신시장은 정부의 정책에 따라 성장과 침체에 막대한 영향을 미친다. IT산업 노동자들의 고용환경 또한 그 결과에 따라 급변하게 된다. 90년대 후반 급격한 IT산업의 성장으로 많은 인력들을 교육하고 배출하지만 대부분 비정규직으로 전락했으며 저임금 고노동에 시달리게 된 현실은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 특히 벤처신화로 불리 우는 몇몇 벤처기업의 성공은 저임금 고노동의 고통을 잊게 하는 최면제가 됐다. 정규직 또한 IMF 이후 급격한 경기침체와 시장환경의 정체라는 명목으로 고통을 강요 받고 지속되는 구조조정으로 항시적인 고용불안에 시달리고 있다.

이러한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 전국IT사무서비스노동조합연맹은 IT산업의 노동자들의 단일 조직을 구성해 노정 및 노사정 교섭구도를 이끌어내고 정부 정책에 직간접적으로 참여함으로써 고용환경을 안정시켜 나가려 노력하고 있다.

IT산업은 상호 연관성이 매우 높은 업종 중에 하나이다. 많지 않은 기간통신사업자를

중심으로 시장과 업체가 형성되어 있으며, 소프트웨어 산업도 주요 대기업을 중심으로 하청과 하청 등 사슬고리로 연계되어 있다. 이는 노동자의 동질성이 높다는 것이며, 상호 현실과 공간적 공간이 크기에 단결이 쉽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IT산업계는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통일단결을 통해 차별을 해소하는 것에 주력을 두며, 한국노총 노동자의 통일단결을 통해 노동자의 지위를 높이고자 하는 방향을 수립하고 있기에 IT사무서비스노동조합연맹을 중심으로 앞으로 더욱 결집할 것으로 보인다.

정운모 전국IT사무서비스연맹노동조합 위원장

'기업과 조건의 한계 넘어 하나될 것'

2013년 4월, 취임한 정운모 전국IT사무서비스노동조합연맹 위원장이 향후 IT노동계의 사업에서 가장 중점을 두는 것 역시 단결 강화다. 정 위원장은 취임 초기 인사말을 통해 "21세기는 정보 통신이 중심이 되고 IT를 통해 전 산업이 연결되어 있는 등, 우리 사회에서 IT산업이 차지하는 비중과 영향력이 커졌음에도 IT노동자의 현실은 주변에 머무르고 있다"고 전제한 뒤 "그 동안 시장의 흐름과 자본의 논리에 의해 같은 IT노동자 사이에서도 보이지 않는 경쟁의식이 있었지만, 이제는 기업 울타리와 조건의 한계를 넘어 단결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정위원장은 이제 IT연맹이 노동조건 개선뿐만 아니라 IT노동자들이 생산하는 통신 서비스가 국민을 위해 객관적이며 합리적인 방식으로 되도록 적극 개입할 것이며, 특히 IT산업노동계의 자주성과 독립성에 대한 위상을 정립하는데 강한 역할을 할 것이라는 포부를 내비쳤다.

정운모 IT연맹 위원장은 특히 소통을 강조하며 각 회원조합은 연맹에 수시로 방문이나 전화를 통해 조직의 어려움이나 조직 현안에 대해 이야기 해 줄 것을 당부하고, 연맹 회계의 투명성을 위해 기업카드를 사용하도록 지시했으며, 투쟁 등 연맹 활동을 위한 연맹 기금 확보 및 연맹 직원의 근로복지를 위한 노력에도 주력하고 있다.

정운모 전국IT사무서비스노동조합연맹 위원장이 주창한대로 더 이상 기업별 단위 노동조합의 대응으로는 통신시장의 경쟁 논리에 대응하기 어렵다는 것을 경험적으로 우리는 충분히 알고 있다. IT노동조합이 IT노동자의 구심이 되어 노동조건과 올바른 통신정책을 수립하기 위해서는 기업을 넘어 요구 조건을 단일화하고, 단일한 요구 조건을 투쟁과 교섭을 통해 쟁취해 내는 것이다.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기준은 전국IT사무서비스노동조합연맹을 중심으로 IT 전체 노동자가 단결하는 것이다.



근로기준법 개악 저지! 새누리당 규탄 결의대회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 총파업 투쟁



정운모 IT연맹 위원장 GS네오텍노동조합 방문

〈전국IT사무서비스노동조합연맹 조직현황〉



- KT노동조합, KT링크스노동조합, KT텔레캅노동조합, KTD노동조합, KT하이텔 노동조합, KT&S노동조합, KT에스테이트노동조합, KTens노동조합, KT렌탈노동조합, KT파워텔노동조합, KTIS노동조합, KTCS노동조합, KTsa노동조합, KT렌탈오토케어노동조합, KT캐피탈노동조합, GS네오텍노동조합, SK텔레콤노동조합, 교보정보통신노동조합,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노동조합, 피보텍노동조합, 세종텔레콤노동조합, LG유플러스노동조합, NH테크노동조합, 로지시스노동조합, 한전KDN노동조합, 휴노테크노동조합, 한국무역정보통신노동조합, SK브로드밴드노동조합, SK네트웍스노동조합, 케이엘넷노동조합, 전국보조출연자노동조합, 메가박스노동조합,

전국체전 이상 무! 제주로 놀러옵서예

제주지부 Biz지원팀 이길용 조합원



인터넷 케이블이 복잡하게 구성된 랙캐비닛을 들여다보며 노련한 손놀림으로 설비를 점검한다. 22년 동안 전용선 구축을 전담해온 이길용 조합원은 제주지역에서 내로라하는 케이블 구축 전문가. 이 지역에서 열리는 전국체전의 원활한 경기중계를 위해 경기장 곳곳을 돌며 전용망을 구축하는 그의 손길에 제주 토박이로서의 자부심이 묻어난다.

40여 개 경기장 전용망 네트워크 구축

제95회 전국체전을 앞두고 시합이 열리는 각 경기장에서는 전용망 개설 작업이 한창이다. 현장에서 벌어지고 있는 시합을 생생하게 중계하기 위해 40여 곳에 이르는 각 경기장마다 인터넷 전용선 개설 작업이 일제히 진행되고 있다. 그 중에서 가장 분주하게 작업하고 있는 제주종합경기장에서 제주지부 Biz지원팀 이길용 조합원을 만났다. “현재 Biz지원팀 동료들과 함께 시합이 열리는 40여 경기장을 돌며 전용선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여러 경기장 중에서 종합상황실이 설치된 이곳 제주종합경기장 작업이

가장 중요한데요. 거미줄처럼 얽힌 경기장 네트워크에서 종합상황실이 메인 허브 역할을 하기 때문입니다. 농구, 양궁, 체조 등 40여 개 경기장에서 전용선을 통해 데이터를 이곳 종합상황실로 보내오면 다시 kt제주지부를 거쳐 육지로 경기상황이 생생하게 중계되는 것이죠. 전국체전이 열리는 동안 통신 및 중계가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22년 경력 베테랑이 전국체전을 책임진다

제주도는 전국체전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오래 전부터 대부분의 경기시설을 보수했다고 한다. 노후한 광케이블 역시 모두 새것으로 교체하는 대공사를 진행했는데 사업은 모두 kt가 수주했다고 한다. 제주도 내에서 전용망 구축의 노하우를 인정받은 결과다.

“이곳 제주종합경기장을 비롯해 야구장, 실내수영장, 체육회관, 한라체육관, 애월운동장, 복합경기장, 제주도민체육회관 등 전국체전이 열리는 대부분의 경기장에서 광케이블을 교체하는 대공사를 벌였습니다. 제주도에서 kt의 전용선 점유율이 약 80%에 이르는데요. 오랫동안 방송과 통신 분야에서 쌓아온 인프라와 노하우를 인정받아 사업자로 선정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kt가 제주도에서 타사에 비해 탁월한 사업수행능력을 자랑할 수 있었던 것은 베테랑 구성원들이 많이 포진하고 있기 때문이다. 24시간, 365일을 아무런 장애 없이 원활하게 데이터가 전송되어야 하는 업무 특성상 22년 동안 전용선 구축을 담당해온 이



길용 조합원 같은 베테랑의 존재가 더없이 중요하다.
 “SOIP 및 기업용 VOIP와 전용회선 개통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Biz지원팀은 현재 11명의 현장출동요원과 2명의 사무실 근무자로 구성되어 있어요. 저와 같은 현장출동요원들은 장애발생시 신속히 출동을 위해 주야간 교대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장애 신고가 들어오면 주로 회사를 통해 출동명령이 떨어지지만 급할 땐 제 개인 휴대전화를 통해 고객들이 직접 복구 요청을 할 때도 많아요. 고객들이 불편을 겪지 않도록 가까울 때는 제가 직접 출동해 장애를 해결하고 있습니다.”
 일반기업, 공공기관, 은행 등 제주도에서 설치된 전용망 대부분이 kt가 구축한 만큼 이길용 조합원은 드넓은 업무 영역을 책임지며 구슬땀을 흘리고 있다. 더구나 전국체전이 열리는 기간 내내 제주도 전역에 산재한 경기장을 돌며 장애가 발생하지 않도록 평소보다 더욱 긴장을 늦추지 않고 있다. 오랫동안 선거와 각종 축제 등 수많은 현장에서 쌓은 전용선 구축 업무의 노하우를 기반으로 전국체전이 성공적으로 마무리 될 것이라 이길용 조합원은 자신한다.

아시안게임 결승골, 제주 다시 한 번

“Biz지원팀 모두가 한마음이 되어 전국체전 기간 내내 장애가 생기지 않도록 많이 긴장하고 노력할 것입니다. 오랜만에 제주에서 전국체전이 열리는 만큼 제주도가 좋은 성적을 거두었으면 좋겠어요. 많은 종목이 열리지만 그 중에서도 축구가 8강을 통과해 더 좋은 성적을 냈으면 합니다. 사실은 제가 열혈 축구 마니아거든요. 이번 아시안게임에서 극적으로 결승골을 넣은 이가 바로 제주도 출신의 임창우 선수예요. 이번 전국체전에서 좋은



선수들이 많이 나와 제2, 제3의 임창우 선수로 성장해 제주도를 빛내길 바랍니다.”
 한국팀을 우승으로 이끈 걸출한 스타를 배출했음에도 이길용 조합원은 제주도가 축구에서 8강 정도의 성적으로 만족하리라 예상한다. 전국체전에 참가하는 16개 광역시도 중 인구 수가 가장 적은 60만 명을 보유했기 때문에 단순히 산술적으로 보자면 제주도는 육지에 비해 선수층이 얇은 취약점을 안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역대 전국체전에서 제주도가 1인당 메달 획득률이 경기, 서울에 이어 3위를 기록하는 등 질적인 우세를 보이고 있는 만큼 이번 대회에서 어떤 성적을 낼지 그 결과를 주목하지 않을 수 없다.
 “제주도 고등학교 축구팀은 모두 7개가 있습니다. 축구부가 많은 육지에선 한 학교가 각 시도를 대표해 전국체전에 출전하지만 제주도는 우수한 선수 개개인을 선발해 대표팀을 구성해요. 각 경기장을 돌며 전용망을 점검할 때 다른 곳에서는 달리 축구경기장에서는 선수들을 향해 한번이라도 시선이 더 가게 되거든요. 이번 대회에서 제주도가 꼭 좋은 성적을 거두리라 예상합니다.”



한라산 단풍 보러 제주로 놀러옵서예

전국체전이 열리는 제주도는 손님맞이를 준비하며 이곳저곳에서 축제의 분위기가 넘쳐난다. 물론 연중 내내 수많은 관광객이 몰려오는 곳인 만큼 특별한 손님맞이 준비를 할 필요는 없어 보인다. 하지만 제주 토박이인 이길용 조합원은 내가 태어나 자란 고향에 큰 축제가 열리고 육지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찾아온다는 생각에 벌써부터 마음이 설레는 듯하다.
 “제 고향에서 큰 축제가 열린다는 사실에 자부심을 느낍니다.

제주도는 섬 전체가 관광지인 만큼 어딜 가더라도 구경할 곳이 참 많아요. 전국체전이 열리는 가을에는 한라산 단풍을 비롯해 거문오름, 성산일출봉, 동굴 체험 등 구경할 것이 정말 많습니다. 청정 고향인 제주도에 찾아오신 분들이 즐겁게 관광하시면서 좋은 추억 만들어 가시면 좋겠어요.”
 제주에 아는 조합원이 있다면 육지 사람들에게 알려지지 않은 숨은 비경을 소개받을 수도 있다. 하지만 하루 24시간 경기장을 돌며 전용선을 점검하느라 바쁘게 움직이는 이길용 조합원을 만나기는 어려울 듯하다. 전국체전의 성공적 개최와 제주도를 찾는 사람들을 위해 그가 환영사를 부른다.
 “22년 동안 kt에 근무하면서 여러 조합원들과 즐거운 추억을 남길 수 있었어요. 육지에서 근무하는 조합원들이 아무 탈 없이 건강하게 지냈으면 좋겠습니다. 소망이 있다면 단연 가족이 건강하고 행복하길 바라는 것이고요. 이번 전국체전을 계기로 제주로 오시는 조합원들 중 저를 아시는 분들은 제주지부에 연락하셔서 소주 한잔 기울였으면 좋겠습니다. 육지의 조합원들 모두 건강하시길 빌겠습니다.”

ISSUE & SOCIETY

‘뜨거운 감자’ 의료영리화 논란 재점화



보건복지부는 지난 9월 19일, ‘의료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안’을 공포, 시행하기로 밝혔다. 정부가 발표한 의료 관련 투자활성화 정책에 따르면 앞으로 의료법인은 병원 외에도 숙박업, 여행업, 종합체육시설업, 목욕장업 등을 할 수 있게 된다. 병원 공간을 미용실, 안경점, 은행 등에 임대하는 것도 가능해진다. 그리고 하반기 안으로 보건소를 중심으로 의사-환자 간 원격의료 사업을 시범적으로 실시하기로 했다. 하지만 이같은 의료영리화 논란이 일던 정책이 확정되자 5개 의약단체와 시민단체들의 반발도 다시 거세지고 있다.

의협 불참한 원격의료 시범사업, 국회에서 논란 이어질 듯

지난 3월 집단휴진까지 강행하며 정부의 의료영리화 정책에 반대했던 대한의사협회는 정부가 단독으로 실시하는 원격의료 시범사업에 참여할 뜻이 없다고 밝혔다. 의협은 이번 사업이 국민 건강과 안전을 무시한 졸속적 방편이라고 비난했다. 이에 따라 당장 하반기에 정부가 단계적, 시범적으로 실시한다고 하는 원격의료 사업에 대한의사협회 소속 의원을 배제한 채, 원격의료의 안전성을 검증할 수 있을지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는 실정이다. 자칫 의료사고가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기 때문이다. 대한약사회, 대한간호협회 등 5개 보건의료인단체 또한 정부의 의료영리화 정책 추진 중단을 요구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시민단체 역시 반대의 목소리를 높였다. 의료민영화저지 범국민운동본부는 의료민영화를 강행하는 정부에 맞서 11월 1일 범국민총궐기대회를 개최할 것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정부의 이번 의료법 개정 법안은 입법예고 기간 동안에만 10만 건 이상의 반대 의견서가 제출될 정도로 반발이 컸던 법안인 만큼 공포 이후에도 관련 논란은 잦아들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다가오는 복지부 국정감사에서 핵심 이슈로 다뤄지는 등 그 후폭풍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영리병원 과연 무엇인가?

영리병원은 말 그대로 영리법인이 설립한 병원을 뜻한다. 즉 이윤을 추구하기 위해 병원을 차리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주주를 모아 대규모 자본을 끌어올 수 있어 의료기관에 대한 투자가 활성화되는 장점이 있다. 하지만 당연히 주주에 대한 배당과 이해관계에 따라 운영되기에 병원의 본래 목적인 환자 치료 보다는 수익 사업을 극대화 할 것이라는 우려 또한 존재한다. 현재 우리나라의 모든 병원은 법적으로 ‘비영리병원’이다. 병원 중 95% 이상이 민영(민간소유) 병원이지만 운영 방식은 공공성 원리에 따르고 있다. 대기업의 이름을 달고 있는 대형병원 역시 직접 소유가 아닌 비영리재단을 통해 소유하고 있으며, 의료수익을 다시 의료 사업에 재투자하고 있다. 그래서 현재 우리나라 모든 병원은 소유 주체와 상관없이 공공성을 매우 강하게 띠고 있다. 모든 병원은 예외 없이 국민 건강보험을 의무적으로 받아줘야 하고, 건강보험 적용 항목 즉 급여 항목인 의료 행위에 대해서는 건보 수가에 따라 가격을 책정하는 당연지정제에 따르고 있기 때문이다. 이는 다시 전 국민 건강보험 의무 가입을 떠받쳐주는 강력한 밑받침이 된다.



의료 투자 활성화에 따른 정부의 기대

정부의 의료 투자 활성화 대책은 의료 기관이 비영리운영에서 벗어나 영리 자회사를 운영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지금은 병원이 장례식장 등을 제외하고는 영리활동을 거의 금지하고 있지만, 앞으로는 병원이 만든 영리 자법인에서 여러 부대사업을 할 수 있게 된다. 이러한 부대사업에는 화장품 사업, 여행업, 목욕탕 사업 등이 포함된다. 병원이 경영난을 겪고 있으니 규제를 완화시켜주고, 적자를 상쇄해 줄 물꼬를 터주겠다는 취지다. 이렇게 병원들이 부대사업을 통해 안정적인 수익원이 보장되면 의료서비스의 질이 높아지고, 그동안 수익에 급급해 환자에게 비급여 진료를 강요하는 등의 일도 줄어들어 오히려 환자 중심의 의료행위가 가능할 것이라고 정부는 믿고 있다. 또한 시민단체에서 제기하는 의료 민영화에 대한 우려에 대해서도 영리병원이 도입되어도 99%는 기존 건보체계를 그대로 적용받기 때문에 의료 민영화 우려는 기우에 불과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의료영리화의 시작, 근간이 흔들리는 의료체계

이 같은 정부 주장에 대해 반대하는 입장에서는 이는 정부의 장밋빛 희망사항일 뿐이라고 비판한다. 현재 우리나라 병원의 90% 이상이 민영 병원인 현실에서 의료영리화가 진행되면 과연 병원이 예전처럼 얼마만큼 공공성을 기본으로 운영할지가 먼저 의문이라는 것이다. 지금도 민간 병원의 현실적인 목표는 이윤 창출이다. 다만 치료비를 건강보험공단에서 의무적으로 지켰을 뿐인데, 앞으로 더욱 이윤극대화 중심으로 운영되면 얼마나 더욱 자본논리를 따라갈지 우려하고 있다. 의료영리화가 본격화되면 대형 의료법인 중심으로 재편돼

이에 따른 쏠림현상으로 기초 의료기관인 소규모 동네병원은 문을 닫게 되어 전반적인 의료서비스가 제한될 것이라는 주장도 있다. 정부의 희망대로 병원이 투자활성화로 수익이 안정화되고 흑자가 나더라도, 이익을 최소화하고 소신 진료에 집중하겠다는 병원은 과연 얼마나 될 것인지 현재는 아무도 모른다. 다만 그동안 무한 경쟁체제에서 시장 경제가 돌아가는 방식을 볼 때 자본에서 소외된 환자는 의료영리화 이후 더욱 소외될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다. 의료 민영화의 폐해를 얘기할 때 흔히 미국의 예를 들지만 미국의 병원 60%는 자선병원 등 비영리병원이다. 영리병원은 고작 전체의 18%에 불과하다. 의료민영화의 대명사라 불리는 미국도 공공병원이 25%를 넘는다. (우리나라 공공병원은 최근 8년 사이 급감해 현재는 10% 미만까지 떨어진 상태다.) 이는 의료민영화의 문제가 영리병원의 비율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말해준다. 영리병원 도입으로 앞으로 의료 시스템은 전체적인 변화를 맞이하길 것으로 보인다. 현재 당연지정제와 국민건강보험 의무가입제의 토대가 흔들리는 순간 우리나라 의료 체계는 근본적인 변화를 겪게 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하고 있다.

〈자료 : 보건복지부〉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으로 확대되는 의료법인 부대사업

현행

- 의료인 교육, 의료·의학 조사·연구, 노인의료 복지시설, 장례식장, 주차장, 의료정보시스템 개발·운영
- 휴게음식점, 일반음식점, 제과점, 위탁급식업, 편의점, 슈퍼마켓, 자동판매기, 산후조리업, 이·미용업, 의료기기 임대·판매(의료법인 직접 영업은 제외), 안경 조제·판매 은행업
- 시·도지사 공고사업

추가로 허용·변경되는 부대사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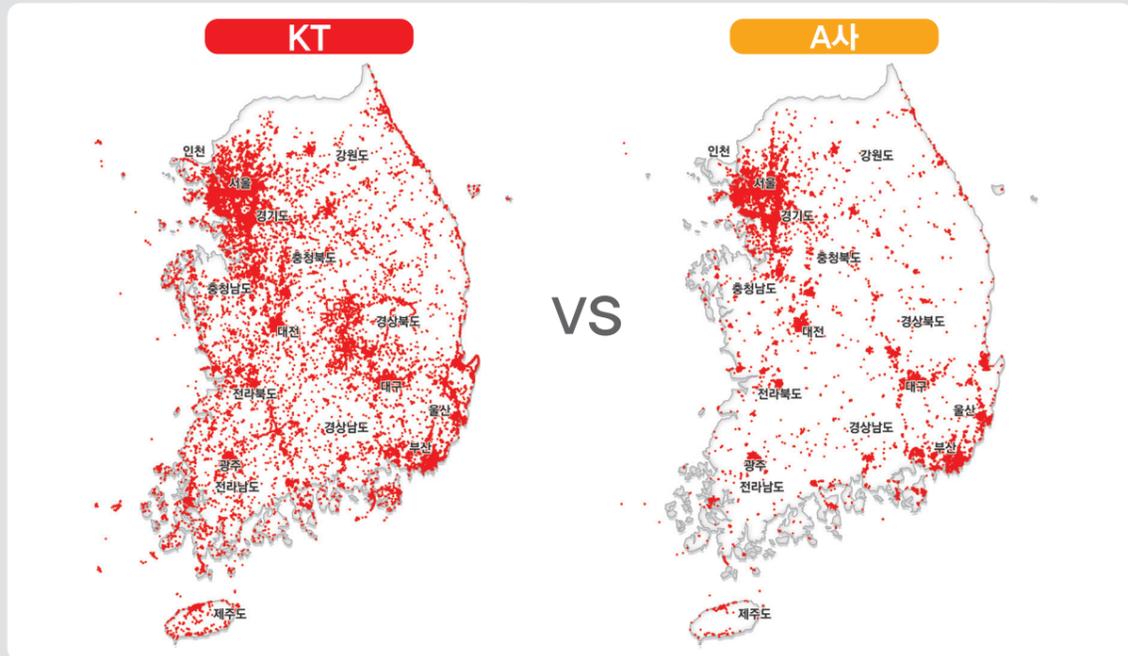
- 생활용품·식품 판매업(의료법인 직접 영업은 제외), 목욕장업, 숙박업, 여행업, 외국인 환자 유치업, 수영장업, 체육단련장업, 종합체육시설업, 장애인 보조기구 제조·개조·수리업
- 건물 임대업 : 이·미용업, 안경 조제·판매업, 은행업, 의원급 의료기관(의료관광호텔에 부대시설로 설치하는 경우만 가능)

고객들과 함께 완성한 광대역 LTE-A 커버리지 맵

고객들이 직접 광대역 LTE-A 서비스 품질을 체험하며 지도를 완성하는 광대역 커버리지 지도 이벤트가 절찬리에 진행 중이다. 국내 최대 10만 광대역 LTE 기지국을 보유하고 있는 kt가 고객들에게 서비스 품질을 자신 있게 어필할 수 있는 광대역 커버리지 지도 그리기 이벤트에 대해 알아보자.

광대역 LTE 커버리지 지도!

고객님이 직접 벤치마킹 측정된 결과를 지도에 표시했습니다.



국내 최대 10만 광대역 LTE 기지국, 기지국 수가 품질이다

※아래 지도의 점들은 'LTE 단말'로 벤치마킹 속도 측정 시 '광대역 LTE망'에 접속한 건의 위치정보를 표시한 것입니다. (반영 기간 : 7.26~8.21)

호기심을 유발하는 지도 만들기 이벤트

고객들이 어디에서나 막힘없는 LTE-A 서비스를 누리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촘촘하고 넓은 커버리지 확보가 중요하다. 현재 kt는 이동통신사 중 전국 최다인 10만 기지국을 운영하고 있으며 경쟁사 결코 모방할 수 없는 압도적인 서비스 품질을 고객들에게 제공하고 있다.

실제로 kt는 경쟁사와 확연히 구별되는 kt의 우수한 광대역 LTE-A 서비스 품질을 확인하기 위해 고객들의 직접 참여를 통한 전국 광대역 커버리지 지도 이벤트 지난 7월 26일부터 실시했다.

'광대역 커버리지 지도를 그리자'는 광고는 처음에 고객들로 하여금 호기심을 유발하는 데 성공한다. 광고 속 '지도'의 의미는 무엇이며, 또 어떻게 '내가 지도를 완성할 수 있을까' 하는 고객들의 궁금증 사이로 kt는 '벤치마크'라는 LTE 전송속도를 측정하는 애플리케이션 프로그램을 통해 전송속도가 나타나는 화면을 캡처한 후 이를 전송해줄 것을 고객들에게 당부한다. 물론 이벤트에 참여한 고객들에게는 다양하고 푸짐한 경품이 제공됐다. 고객들의 높은 호응으로 광대역 커버리지 지도는 쉽게 완성될 수 있었다. 굳이 경쟁사의 전송속도를 거론하지 않더라도 우수한 주파수 대역을 기반으로 서비스되는 kt의 LTE-A 품질은 누구도 쉽게 범접할 수 없는 kt만이 제공할 수 있는 서비스라는 것을 확인시켜줬다.

전 세계가 인정한 kt의 LTE-A 품질력

그렇다면 kt가 어떻게 경쟁사에 비해 압도적인 커버리지 능력을 갖출 수 있었을까. 첫 번째 열쇠는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압도적인 기지국 수다.

kt는 전국 최다인 10만 개가 넘는 기지국과 25만 개가 넘는 광대역 LTE 중계기를 설치해 운용하고 있다. 그로 인해 kt는 건물 내부는 물론 지하시설 및 수도권 1~9호선을 비롯한 모든 지하철 노선과 섬 지역(백령도, 연평도, 주문도, 대/소이작도, 덕적도, 우도 등 전체 23개 도서 포함)과 경기 외곽지역에까지 가장 넓고 촘촘한 서비스가 가능하다.

두 번째로 열쇠는 해외에서도 인정받은 kt의 우수한 LTE-A 품질이다. kt는 지난 2월 4세대 이동통신 서비스 품질을 측정하는 영국의 저명한 조사기관인 Open Signal에서 LTE-A 속도평가에서 국내 1위로 선정된 바 있다. 또한 Mobile World Congress 2014에서 Global Mobile Awards 2관왕의 영예를

얻기도 했다. kt는 꾸준한 네트워크 점검 및 유지보수를 통해 국내 이동통신사 중 통신장애가 거의 없는 가장 안정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고객들과 함께하는 컨슈미디어 이야기

kt의 커버리지 이벤트는 그 형식과 메시지를 전달하는 방식에 있어서도 많은 화제를 불러일으켰다. 완전 백지 상태인 우리나라 지도를 내놓으며 경쟁사와의 광대역 LTE 서비스 품질을 비교해보겠다는 의도는 처음부터 세간의 주목을 받기 시작했다. kt 고객과 타사 고객은 속도측정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을 이용해 광대역 LTE 네트워크에 접속한 결과를 지도 위에 점으로 찍어 나가기 시작했는데 지난 7월 26일 이벤트를 개시한 이후 불과 3일 만에 10만 개의 점으로 지도가 완성됐다.

kt는 이처럼 고객의 참여로 지도가 채워지는 과정을 홈페이지에 공개하는 한편, TV를 포함한 온라인 매체를 이용해 '컨슈미디어 라이브' 광고 효과를 거둘 수 있었다.

컨슈미디어란 '소비자'(consumer)와 '매체'(media)를 결합한 신조어다. 소비자들이 똑똑해지면서 천편일률적인 광고·홍보로는 제품을 알리는 데 한계가 있다는 것을 뼈저리게 체감한 광고주들은 다양한 채널에서 고객의 참여와 공감을 이끌어내 자발적인 마케팅을 유도하기에 이르렀으니 이름하여 그것이 바로 '컨슈미디어'다.

kt는 kt의 메인 캠페인이라 할 수 있는 'Good Choice'를 알리기 위해 고객이 직접 광고를 만들어 참여하는 '굿초이스는 내가 알린다' 이벤트를 진행해 커다란 마케팅효과를 거둔 바 있다. kt의 이번 광대역 LTE-A 커버리지 지도 이벤트를 통해 국내 이동통신시장에서의 우월한 입지를 다시금 과시할 수 있게 됐다.



‘갈등의 시대’에 절실한 관용과 배려

한국에 관용과 배려가 없다... OECD 꼴찌 수준

우리나라의 사회통합지수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들 가운데 하위권으로 나타났다. 특히 ‘관용’은 꼴찌 수준이다. 올해 초 한 경제학회에 발표된 논문에 따르면 1995년 21위였던 한국의 사회통합지수는 15년 후인 2009년 24위로 세 계단이나 뒷걸음 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관용사회 부문 순위는 같은 기간 25위에서 31위로 내려가 OECD 조사국 가운데 꼴찌를 기록했다.

다른 조사 역시 크게 다르지 않다. 최근 현대경제연구원이 조사한 신뢰나 배려, 참여 등 우리나라의 사회자본 지수 연구결과, 5.07점으로 나타나 OECD 평균(5.80점)에도 못 미쳤을 뿐만 아니라 회원국 중 29위로 최하위권을 기록했다. 무엇보다 공적 사회자본 수준지수는 4.75점으로 OECD(5.37점) 평균과 큰 차이를 보였다. 이는 그동안 외형적인 성장을 이룩한 경제분야에 비해 사회의 성숙도는 오히려 악화되고 있는 상황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라고 하겠다.

G7국가 사회자본지수 추정 결과

종합순위	국가	사적신뢰	사적배려	사적참여	사적 사회자본	공적신뢰	공적배려	공적참여	공적 사회자본	전체지수
1	노르웨이	8.17	8.53	4.57	7.09	6.52	6.81	5.34	6.22	6.66
2	뉴질랜드	7.46	8.52	5.37	7.12	6.19	7.17	4.52	5.96	6.54
3	스웨덴	7.67	8.27	5.14	7.02	6.14	7.56	4.29	6.00	6.53
9	캐나다	7.28	8.50	5.22	7.00	5.49	6.88	4.29	5.55	6.28
14	영국	7.05	8.07	4.84	6.65	5.72	7.48	3.77	5.66	6.16
15	독일	7.03	7.87	4.58	6.49	5.64	6.62	4.59	5.62	6.06
17	미국	6.59	7.68	5.85	6.71	4.73	6.54	4.23	5.17	5.94
18	프랑스	6.71	7.42	3.21	5.78	5.49	7.19	3.98	5.55	5.66
21	이탈리아	7.12	6.00	4.82	5.98	4.86	5.91	3.77	4.85	5.41
23	일본	7.26	6.42	3.77	5.81	4.86	6.08	4.00	4.98	5.40
29	한국	6.71	5.23	4.26	5.40	4.11	5.99	4.14	4.75	5.07
G7 평균		7.01	7.42	4.61	6.35	5.26	6.67	4.09	5.34	5.84
OECD 평균		7.14	7.20	4.32	6.22	5.31	6.63	4.17	5.37	5.80

※ 주: OECD 국가 가운데 이스라엘, 터키는 제외

복합갈등 사회, 대한민국

무한경쟁으로 치닫고 있는 우리사회는 어느덧 상대를 억압하는 힘만이 강력한 사회 논리로 자리를 잡아가고 있다. 개인은 감수성이 예민한 청소년 시절부터 타인을 배려하고 존중하는 교육보다는 성적 위주의 입시경쟁에 내몰린다. 성인이 되어도 마찬가지다. 지성의 전당이라고 하는 대학교에서는 오직 각



자 스펙 쌓기에만 몰두하고, 기성세대는 오직 내 자식과 집값 등 하루하루 생존모드로 가진 걸 지켜내기에 급급하다. 사회로 시선을 넓혀도 마찬가지다. 정치권 대립은 종종 상대방을 ‘중복’, ‘수꼴’ 등 이분법적 구도로 몰아넣는다. 각종 정책을 둘러싸고 이해 당사자 간 갈등은 나날이 격해지고 있다. 여기에 다문화사회로 접어들면서 먼 나라 이야기로만 치부됐던 인종, 문화 간 갈등도 사회문제로 부각되고 있다.

실상 우리 사회 구성원의 대다수 개인은 각자 서로 다른 소수자와 약자의 영역에서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은 약자 보다는 강자의 입장에서 서로를 타자로 내몰고 있다. 이와 같은 쓸쓸한 상황은 무엇보다 그동안 경제성장 위주의 과거에서 일상화된 경쟁과 교착환경이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전쟁 시기이다. 이때의 ‘관용’은 말 그대로 다른 것을 “용인하다”라는 시혜적 뜻이 강했다. 그래서 당시의 관용은 일시적이고 한계가 있었다. 국가의 안정이라는 실용적인 목적을 위해 다른 종교를 허용할 수밖에 없었던 배경에서 관용의 개념이 태어났다.

하지만 현대사회에서 말하는 관용 즉 톨레랑스는 이보다 발전한 개념이다. 나와 다름을 인정하는 ‘나’의 배플기에서 ‘너’의 권리 존중으로 그 의미가 변화했다. 한국 사회가 그동안 관용이라는 말의 사용을 다소 주저하는 것은 그 말 속에 들어 있는 ‘용서’라는 의미 때문인데, 오늘날 관용이라는 말을 이같이 협소한 의미로만 사용하는 것은 시대착오적이다. 관용은 나와 다른 타자의 권리를 존중하는 것이다. 다름을 받아들이지 않고 다름을 이유로 억압하고 압제하는 행동(앵플레랑스)을 하는 세력에 대해서는 단호히 반대를 드러내는 것이다. 나의 자유를 인정할 뿐만 아니라 남의 자유를 인정하는 하나의 윤리이며, 각 개인이 반드시 이해하고 실천해나가야 할 평화 공동체의 공존 원칙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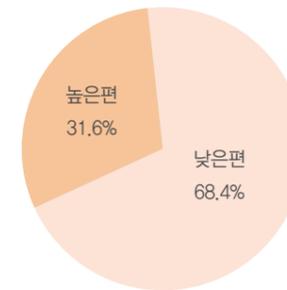
사회 소통을 앞당기는 희망의 윤리, 관용과 배려

지난 8월 방한한 프란치스코 교황은 “용서와 관용과 협력을 통해 불의를 극복하라”는 메시지를 남겼다. 물질 숭배와 무한 경쟁에 내몰린 각박한 우리 사회에 나눔과 배려, 관용과 인간의 존엄성을 일깨워주는 프란치스코 교황의 말과 행동이 준 의미는 크다. 타자의 권리를 인정하는 것, 즉 관용은 갈등을 해결하는 힘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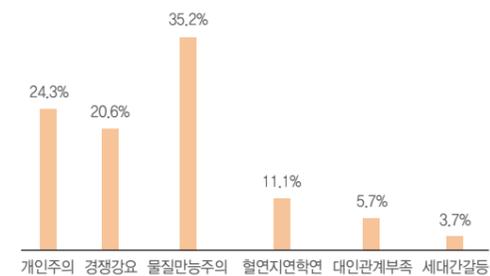
특히 사회가 경쟁 일변도로 치달을수록 약자와 소수자에 대한 배려는 무시되기 쉽기에 더욱 필요하다. 이는 곧 정의와 연결되기 때문이다. 모든 사회문제는 입장에 따라 양면성을 가지고 있다. 한 인권전문 변호사는 그런 헛갈리는 상황에서 잊지 말아야 할 것으로 약자 우선의 원칙을 꼽는다. ‘의심스러울 때는 약자의 이익으로’ 해석하라는 것이다. 형사소송법에서 자주 논의되는 ‘의심스러울 때는 피고인의 이익으로’를 변용한 표현인데, 사회적 정의의 실천에서 어느 입장에 서야 할지가 불투명할 때 방향을 정하는 좋은 기준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다원주의 시대에 살고 있는 지금은 다양한 의견에 귀를 기울이고 관용과 배려로 소통을 하는 자세가 필요한 때이다. 권력이나 재산, 지위가 아닌 사람 자체로 존중하는 관용 사회가 절실하다. 다름을 틀림으로 인식하지 않고 차이를 이해하고 그 안에서 소통을 할 때 모두가 행복한 공동체가 비로소 가능할 것이다.

〈우리나라 공동체 의식 수준〉



〈우리나라 공동체 의식 수준〉



※ 자료 : 현대경제연구원 2014년 7월 조사

일상 속에 필요한 관용의 가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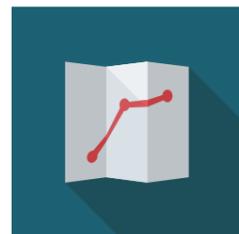
지금 우리 사회에 반드시 필요한 덕목은 바로 관용이다. 관용은 근대에 시작된 근대적인 사상이다. 서양 역사에서 ‘관용 (tolerance)’이라는 말이 처음 사용된 것은 16세기 중반의 종교

안전한 여행으로 만족 두 배



나 홀로 여행자를 위한 해외여행 안전 수칙

해외여행객 90만 시대다. 지난 추석연휴에 해외로 출국한 여행자 수가 인천공항 개항 이래 최대라는 소식도 전해졌다. 이는 3년 새 두 배 이상 증가한 수치다. 해외여행 문턱이 낮아지고 여행에 대한 기대와 관심이 어느 때보다 높은 탓에 혼자서 떠나는 여행객도 늘고 있다. 홀로 떠나는 여행은 갖가지 여행의 묘미를 즐기기에 더없이 좋은 조건이지만 그만큼 위험 부담도 크다. 혼자 떠나는 여행객들이 알아둬야 할 여행자 필수 안전수칙을 알아보자.



하나, 첫 도착지는 안전지역으로

첫 도착지는 비교적 안전한 지역으로 선택하는 것이 좋다. 외교부에서 제공하는 여행경보 단계(1~4단계)를 확인하고 상대적으로 위험 요소가 적은 나라를 선택한다. 홀로 떠나는 여행인 만큼 위험요소는 배제하는 것이 좋다.

둘, 항상 오전에 일찍 도착하라

비행 스케줄과 이동시간을 고려해 목적지에는 반드시 낮 시간 대 도착하도록 한다. 목적지에 밤늦게 도착하게 되면 당황하기 쉽다. 심리적으로 불안한 상태에서는 잘못된 결정을 내릴 수 있다. 예상보다 비싼 호텔에 머물게 되거나 엉뚱한 곳으로 이동하게 될 수도 있다.

셋, 노숙과 히치하이킹은 절대 금물

노숙이나 히치하이킹 또한 여행의 색다른 경험이기도 하지만 불필요한 위험을 감수할 필요는 없다. 특히 혼자서 자신을 보호해야 하는 상황이라면 선부른 도전은 금물이다. 사고는 항상 예기치 못한 상황에서 일어나게 마련이다.

넷, 낯선 사람의 지나친 친절을 경계하라

낯선 사람이 베푸는 과잉친절은 항상 경계해야 한다. 길 안내나 택시 합승, 한국에 관심이 많으며 접근하는 사람은 가급적 피하는 것이 좋다. 이들 대부분은 여행자를 상대로 한 소매치기나 호객꾼, 사기꾼일 경우가 많다. 특히 음식물을 건네주며 접근하는 현지인을 경계해야 한다. 음식이나 음료에 수면제를 넣어 여행자를 노리는 범죄도 종종 발생하니 주의해야 한다.

다섯, 택시를 탈 때는 항상 뒷자리에

택시를 탈 때는 가급적 뒷자리에 앉아 만일의 사태에 대비한다. 택시비로 잔돈을 미리 준비하는 것이 좋다. 또 숙소의 전화번호, 주소, 약도 등을 현지 언어로 적어서 소지하면 편하다. 만일 나쁜 택시 기사를 만나 목적지 이외 지역으로 주행하거나 부당요금을 요구하면 경찰에 알려 경고를 해야 한다.



여섯, 밤 10시 이후의 여행은 금물

늦은 밤 시내 여행은 가급적 피하는 것이 좋다. 여행자는 야간의 현지 분위기나 거리 문화를 파악하기 어렵고 특히 기차역 주변은 밤 10시 이후에는 전혀 다른 분위기로 바뀌는 경우가 많다. 빈의 서역이나 로마의 테르미니역, 암스테르담의 중앙역 주변 등도 그런 곳 중 하나다. 늦은 시간에 인적이 드문 뒷골목을 배회하는 것은 절대 금물이다.

일곱, 위험한 여행지는 동행자와 함께

야간열차를 탈 때 혼자 칸막이 객실에 앉아 있는 것은 위험하다. 특히 동유럽 지역에서의 야간 이동은 절대 금물. 현지에서 믿음직한 여행 친구를 사귀어 동행하는 것도 안전한 여행을 위한 좋은 방법이다.

여덟, 항상 겸손하고 건전한 여행자의 자세로

현지 문화를 최대한 존중하고 건전한 여행을 즐기는 것이 중요하다. 목적지에 도착하기 전에 기본적인 현지 언어, 통화, 교통, 물가 수준 등을 미리 숙지하면 여행지에 도착해서 당황하지 않는다. 특히 현지 문화와 규범에 대한 이해가 필수다. 주의해야 할 현지 문화를 사전에 숙지해 불필요한 오해를 불러일으키지 않는 것이 좋다.

아홉, 모르는 사람의 수화물 운반 부탁 거절

여행지에 만난 사람의 부탁으로 가방을 운반하다 현지 공항 당국에 마약소지혐의나 마약 운반혐의로 체포된 사례가 있다. 본인도 모르는 사이, 마약 운반에 자신의 여행 가방이 이용당할 수 있다. 항상 수화물이 단단히 잠겼는지 확인하고 가방을 가까이 두어 시야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해야 한다. 특히 모르는 사람과 함께 국경을 넘는 경우 주의해야 한다.

열, 낯선 여행지에서 건강관리는 필수

혼자 떠난 여행에서 건강관리는 필수다. 충분한 수면과 휴식 그리고 적당한 운동으로 정상 컨디션을 유지하고 과음이나 무리한 일정으로 피로가 누적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소염진통제나 해열제, 상처치료제 등 기본적인 상비약과 평소 복용하는 약이 있는 경우 의사의 처방전을 소지하는 것이 좋다.

그밖에 외교부와 한국관광공사에서 제공하는 해외여행 정보를 참고하자.

- 외교부 해외안전여행 홈페이지 www.0404.go.kr
- 한국관광공사 지구촌스마트여행 홈페이지 www.smartoutbound.or.kr

여정은 짧지만 여운은 길다

주말 밤도깨비 여행



일 년에 한번 꼴맛 같은 휴가의 끝에는 휴식에 대한 갈망이 더욱 커진다. 여행을 다녀온 뒤라면 그 뒷맛은 더욱 길다. 꼬박 일 년을 더 기다려야 한다고 생각하니 그 기다림이 한정 없게 느껴진다. 이럴 때, 짧게나마 여행에 대한 갈망을 채워주고 일상에 에너지가 되어 주는 짬짬이 여행이 필요하다. 가까운 곳으로 부담 없이 떠날 수 있는 '밤도깨비 여행'을 계획해 보자.

일본, 주말 밤도깨비 여행의 원조

일본은 밤도깨비 여행의 대표적인 나라다. '가깝고도 먼 나라'라는 수식답게 짧은 비행시간으로 색다른 문화를 경험할 수 있기 때문이다. 후쿠오카는 일본에서도 우리나라와 가장 가까운 도시다. 1시간 30여 분의 비행시간으로 일본 규슈지역의 특색을 만날 수 있는 색다른 여행지다. 최근 엔저 현상으로 일본 여행이 적기를 만난 것도 좋은 기회다.

후쿠오카는 대도시의 매력과 하카타만(灣)으로 대표되는 아름다운 자연 경관을 두루 갖춘 매력적인 도시다. 시티루프버스 '그린'을 이용하면 후쿠오카의 인기 관광코스를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다. 캐널시티 하카타에서 출발해 구시다 신사, 하카타마치야 향토관, 하카타 리버레인, 후쿠오카 타워, 텐진을 거쳐 야나바시 연합시장까지 한 번에 둘러 볼 수 있다.

캐널시티 하카타에서 하카타 가와바타 상점거리를 거쳐 하카타 리버레인까지 이동하며 쇼핑, 맛집, 공예품가게 까지 두루 둘러 볼 수 있다. 구시다 신사와 하카타마치야 향토관에서 규슈지역의 생활 문화를 체험하고 하카타 리버레인에서는 전시와 공연까지 관람할 수 있다. 후쿠오카 타워는 해변타워로서 일본 최고의 높이를 자랑하는 후쿠오카의 상징이다. 지상 123m의 전망대에서 후쿠오카시의 전경을 360도로 둘러보는 경치가 압권이다.

텐진은 규슈 제일의 쇼핑 명소다. 일본의 3대 백화점을 비롯해 대형 패션빌딩이 줄지어 있다. 야나기바시 연합시장은 후쿠오카의 명물 명란젓을 비롯한 다양한 음식 전문점이 늘어서 있는 시장이다. 시장 안에서는 신선한 회나 해물덮밥을 먹을 수도 있다.



캐널시티 하카타



하카타 라멘



피크 전망대에서 본 홍콩의 야경



센트럴역의 대형 쇼핑센터

홍콩의 눈부신 밤을 가슴에 품다

화려한 쇼핑 명소로 유명한 홍콩은 쇼핑여행만으로 정의 내리기 아까운 곳이다. 쇼핑과 더불어 다양한 문화, 눈부신 야경, 풍부한 산해진미 등이 조화롭게 어우러져 밤도깨비 여행의 또 다른 명소다. 공항에서 침사추이와 홍콩섬 등을 운행하는 공항철도 AEL(Airport Express Line)이 24시간 운행하는 것도 홍콩 밤도깨비 여행의 큰 장점이다.

매일 저녁 8시부터 빅토리아 항 고층 빌딩들에서 펼쳐지는 음악·조명 쇼 심포니 오브라이트(Symphony of Light)는 잊지 못할 추억이 된다. 100년이 넘는 피크 트램을 타고 홍콩에서 가장 높은 빅토리아피크 전망대에 올라가 내려다보는 홍콩의 야경도 환상적이다.

쇼핑은 홍콩 여행의 가장 큰 즐거움 중 하나다. 그 중에서도 센트럴역과 애드미럴티역, 코즈웨이베이역에 자리한 대형 쇼핑센터는 굳이 쇼핑을 하지 않더라도 그 규모와 화려함만으로 오감을 충족시킨다.

홍콩 여행에서 다양한 먹거리를 빼놓을 수 없다. 장국영도 즐겨 먹었다는 딤섬은 그 종류만도 2천 여 종이 넘는다. 홍콩에서는 한 끼에 두 번 먹는다고 할 정도로 후식은 홍콩에서 즐기는 또 다른 즐거움이다. 망 귀 노마이군(망고 코코넛 찹쌀떡), 남 무이 보 딤(블루베리푸딩), 라 마이 꼬우(흑설탕 찹쌀), 다우푸 파(두부푸딩) 등 입맛 돋우는 디저트뿐만 아니라 값싸고 맛 좋은 음식들을 거리 곳곳에서 즐길 수 있다.

미처 몰랐던 타이완의 매력 속으로

타이완은 요즘 새롭게 뜨는 밤도깨비 여행지다. 풍부한 음식, 아름다운 자연, 다양한 문화가 조화롭게 공존해 밤도깨비 여행객을 만족시킨다. 특히 10월과 11월은 맑고 화창한 날씨가 지속돼 대만을 여행하기 가장 좋은 시기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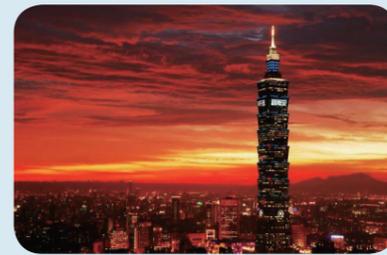
타이완 국립고궁박물관은 세계 4대 박물관의 하나로 손꼽힌다. 69만여 점에 이르는 방대한 소장품을 자랑하는데 유물이 워낙 많아 3개월에 한번 씩 전시물을 교체한다. 모든 소장품을 다 관람하려면 8년이 걸린다고 할 정도다.

홍대 골목처럼 개성 있는 카페와 레스토랑이 즐비한 융캉제에서는 다양한 음식과 디저트를 맛보고 쇼핑까지 한 번에 즐길 수 있다. 홍콩에 딤섬이 있다면 대만에는 샤오롱바오(만두)가 있다. 샤오롱바오로 유명한 딤타이핑 본점도 융캉제에 있다. 거리 곳곳에 아담한 공원이 있어 쉬어가기에도 그만이다.

타이완에서 타이베이101타워를 빼놓을 수 없다. 지상 101층, 지하 5층, 총 508미터 높이로 세계 최초로 500미터 높이를 넘긴 건물이다. 지금은 세계에서 다섯 번째로 높은 빌딩이다. 엘리베이터는 89층 전망대까지 39초 만에 올라가는데, 계단을 이용하면 91층까지 더 올라가 타이베이 시내를 한눈에 내려다볼 수 있다.



타이완 국립고궁박물관 전경



타이베이 101 타워

사소한 습관이 화를 부른다

당신의 건강을 해치는 나쁜 습관들

평소 무심코 행동했던 일상의 사소한 습관들이 건강을 해친다?

'세 살 버릇 여든까지 간다'는 말이 있다. 한번 몸에 밴 습관은 늙도록 고치기 어렵다는 말이다.

자신도 모르게 반복했던 사소하지만 위험한 습관에 대해 알아보자.



잠에서 깨자마자 스트레칭을 한다

자고 일어나면 우리 몸은 하루 중 가장 뻣뻣한 상태가 되는데 잠에서 깨자마자 급작스럽게 스트레칭하면 허리에 무리가 갈 수 있다. 무리한 허리 스트레칭은 추간판탈출증(허리디스크)의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 물을 마시거나 이를 닦는 등 10여 분 간 가벼운 활동을 한 뒤에 스트레칭을 하는 것이 좋다.

플라스틱 용기에 든 식품을 전자레인지로 데운다

플라스틱 용기는 높은 온도에서 환경호르몬 용출 가능성이 있다. 환경호르몬인 비스페놀-A는 잠재적으로 정자를 손상시키고 성호르몬의 변이를 유발할 수 있다. 전자레인지로 음식을 데울 때는 폴리프로필렌(PP)이나 트라이탄 소재의 플라스틱 용기인지 확인해야 한다. 또 뜨거운 음식을 담을 때는 유리나 도자기, 스테인리스 용기를 사용하는 것이 좋다.

식사 직후 바로 이를 닦는다

음식물의 산과 당 성분은 일시적으로 치아 에나멜(상아질)을 약하게 만든다. 이때 바로 양치를 하게 되면 에나멜이 벗겨지면서 치아의 변색, 마모, 균열을 일으킬 수 있다. 식사 뒤 물로 입을 헹구고 침 속의 칼슘 성분이 치아의 약해진 부위를 강화시킬 수 있도록 40분 정도 지난 이후에 양치를 하는 것이 좋다.

허리띠를 졸라 맨다

허리띠를 꽉 조이면 복강내압을 높여 위산 역류를 일으키는 등 소화기능에 역효과를 초래할 수 있다. 속옷 밴드 정도의 강도만큼 여유 있게 허리띠를 매는 것이 좋다. 허리띠를 맨 상태에서 숨을 편히 들이마시고 내설 수 있어야 한다.

자동차 창문을 열고 운전한다

도심 도로 위의 대기오염은 교외보다 10배 이상 높다. 특히 디젤 매연은 두통과 암, 심장병을 일으키는 원인이 되기도 한다. 도심에서는 자동차 창문을 닫고 내기순환 상태로 운전하는 것이 좋다.

화장실 가는 것을 미룬다

오랫동안 용변 욕구가 있는데도 화장실 가는 것을 미룰 경우, 요로감염에 걸릴 위험이 있다. 심할 경우 방광의 과다 팽창으로 방광염에 걸릴 수도 있다. 요의를 자주 참으면 박테리아가 빠르게 증식해 감염을 일으키는 것이다. 용변은 몸속 노폐물을 내보내는 활동인 만큼 몸이 보내는 신호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

장시간 쉬지 않고 운전한다

오랫동안 같은 자세로 앉아 운전하는 것은 다리의 혈액저류현상을 일으킨다. 150km에서 250km 정도 운전을 한 뒤에는 반드시 차를 세우고 가볍게 걸으며 혈액순환을 원활히 할 필요가 있다. 장거리 여행을 할 때도 마찬가지로, 비행기를 탔을 때는 자리에서 일어나 가볍게 걸거나 스트레칭을 하는 것이 좋다.

엎드려 잠을 잔다

엎드린 상태의 수면 자세는 정상적인 척추 라인이 형성되지 않아 목과 허리의 통증과 마비 증상을 초래할 수 있다. 경추와 척추의 신경이 압박을 받기 때문이다. 또 부족한 잠을 보충하기 위해 책상에 엎드려서 쪽잠을 자는 경우 목이 틀어져 인대가 손상되기 쉽다. 손상이 반복되면 통증과 함께 목 디스크까지 진행될 수도 있다.

다리를 꼬고 앉는다

최근 각종 스마트 기기의 사용 시간이 늘어나면서 구부정한 자세를 오래 유지하게 되는 경우가 많다. 나쁜 자세로 장시간 앉아 있는 생활 습관은 척추 변형을 일으킬 수 있다. 특히 다리를 꼬고 앉는 습관은 고관절에 무리를 주고 혈액순환 장애를 일으킬 수 있다. 흰 다리, 골반 틀어짐, 척추측만증의 원인이 되기도 한다. 척추는 한번 나빠지면 다시 정상으로 되돌리기 어렵기 때문에 무엇보다 예방이 중요하다.

가방을 한쪽으로만 멘다

노트북, 태블릿 등 다양한 디지털 기기로 인해 평소 들고 다니는 짐이 무거워졌다. 무거운 가방을 한쪽 어깨로만 멘 경우 근육의 불균형과 어깨 통증을 유발할 수 있다. 심할 경우 척추의 균형이 깨지면서 추간판탈출증(허리디스크)을 일으킬 수 있다. 양쪽 어깨를 번갈아 사용하거나 무게를 분산할 수 있는 백팩을 이용하는 것이 좋다.

잠들기 직전까지 스마트폰을 본다

스마트폰, 모니터, 노트북 등 전자 디스플레이를 장착한 모든 기기에서 발생하는 블루라이트는 장시간 쬐면 인체에 유해할 수 있다. 스마트 기기 사용 시간이 크게 증가한 현대인의 경우 눈의 피로도가 증가하고, 심한 경우 망막이나 수정체에 손상을 가져오기도 한다. 특히 늦은 밤에 스마트폰이나 PC, TV를 장시간 볼 경우 곧바로 잠들기 어려운 이유도 블루라이트로 인한 수면유도호르몬 분비 저하가 원인이 되기도 한다.

Voices of Readers

고 객 의 소 리

조합원 여러분의 의견은 더 좋은 [마음이 통하는 '길']을 만드는 데 소중한 자료가 됩니다. [마음이 통하는 '길']을 읽은 느낌과 생각을 (kqb@kt.com)으로 보내주세요. 조합원 여러분의 의견을 기다립니다.

IMO운영센터 솔루션 총괄팀 정원환

인터넷코리아 20년! 오늘까지 발자취를 읽으며 문득 처음 인터넷을 접했던 생각이 납니다. window3.1 O/S는 TCP/IP가 지원되지 않아 modem으로 접속 후 trumpet winsock구동시키고 mosaic로 웹 페이지 보다가 조금 지나서 netscape를 사용했었는데 ADSL, VDSL, FTTH로 기술이 발달하고 이제 Giga시대라... 우리 kt가 한국의 통신산업 발달에 선구적인 역할을 해 온 게 자랑스럽네요.

그리고 사회복지제도가 발달하지 못한 우리나라, 자녀 교육에 발목 잡힌 노후를 보고 복지 선진국에서는 이런 문제를 사회공동체에서 어떤 방법으로 해결했는지 다음 호에서는 사례를 소개 해 주셨으면 합니다.

대구네트워크운영본부 신현식

1994년에 전화 모뎀을 사용했었는데 불과 20년 만에 Giga시대를 맞이하게 되었네요.

한눈에 인터넷의 변천사와 우리 kt의 발전 현황을 보게 되어 감회가 새롭게 느껴집니다.

앞으로도 우리 kt의 빠른 발전을 기대하게 됩니다.

대구네트워크운영본부 우진우

아이들이 네명이라 '어떻게 키워야 될까?' 평소 고민이 많은데, 어떻게든 모자람 없이 해주고 싶은게 부모마음 인지라 자녀교육 올인 하고 있었습니다.

해가 갈수록 은근히 노후가 걱정되지만 아직 신경 쓸 여유가 없었는데, 이제라도 균형잡힌 생각을 갖을 수 있는 정보를 접하게 되어 다소나마 도움이 되었습니다.

나주시부 김경순

'마음이 통하는 길' 소식지가 우리의 필수인 건강, 스트레스도 풀고 마음을 향기를 담을수 있도록 레저나 산행 등 좋은 콘텐츠를 많이 담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책이 발행되는 달은 항상 기다려 집니다.

군산지부 고재영

항상 회사 소식을 '길'을 통해 좀더 깊이 알게 되는거 같습니다. 또한 다른 부서에서 근무하시는 직원들의 노고를 다시한번 느끼게 되었습니다.

앞으로도 많은 노력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군산지부 조훈

kt의 지난 20년 동안의 땀흘린 노력이 현재 GIGATOPIA를 실현하기 위한 밑거름이 된듯합니다. 감회가 새롭습니다. KT노동조합 파이팅!

수도권강남고객본부 이희영 조합원

우리 kt가 벌써 인터넷 상용화 20년을 맞이했네요. 이에 소식지에서 '전길남 교수' 인터뷰와 '인터넷 코리아 20년-오늘까지 발자취' 특집기사를 매우 유익하게 잘 읽었습니다.

20년전 '코넷' 등장에서부터 현재의 '기가인터넷'으로 진화를 거듭시킨 kt의 한 구성원으로써 자부심을 느끼는 칼럼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날씨가 많이 쌀쌀해졌네요. 감기 조심하세요.



똑똑한 나의 웨딩플래너 다운플랜

결혼, 처음부터 끝까지 다운플랜이 준비해 드립니다.

문의
신청

1577-1555

www.daonplan.com

다운플랜 웨딩서비스 안내

- 추가 비용없이 가입상품으로 결혼 준비 모두 해결
- 스·드·메 및 리허설/분식 헬퍼비용, 웨딩카 또는 원본 CD, 폐백 음식 또는 DVD 제공
- 전국 웨딩홀 및 웨딩업체 업무 제휴로 전국 행사 가능
- 전국 웨딩홀 무료 섭외 및 할인혜택 제공
- 전문 웨딩플래너의 꼼꼼하고 체계적인 웨딩 플래닝 서비스 제공
- 웨딩서비스는 다운 1호, 다운 1-13호(300만원 상품)으로 이용 가능
- 결혼 관련 문의는 1577-1555(내선번호 2번)로 문의

KTTU QUIZ

제95회 전국체전이 열리는 지역은 어디일까요?(힌트 18~21페이지 참고)

정답 보내주실 곳 : kqb@kt.com(김근배 홍보국장)

* 보내주실 때 반드시 이름/소속/연락처/주소를 함께 기재해 주셔야 상품권이 배송됩니다.

ANSWER

정답과 함께 소식지 '길'을 읽고난 소감을 메일로 함께 보내주시면 선별하여 문화상품권을 보내드립니다.



(주)다운플랜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206번지 kt본사 2층 (주)다운플랜
TEL. 1577-1555, 031-727-4803~4 FAX. 031-727-4809